

기술이 현실이 되는 길



기술보증기금

2014 UNGC C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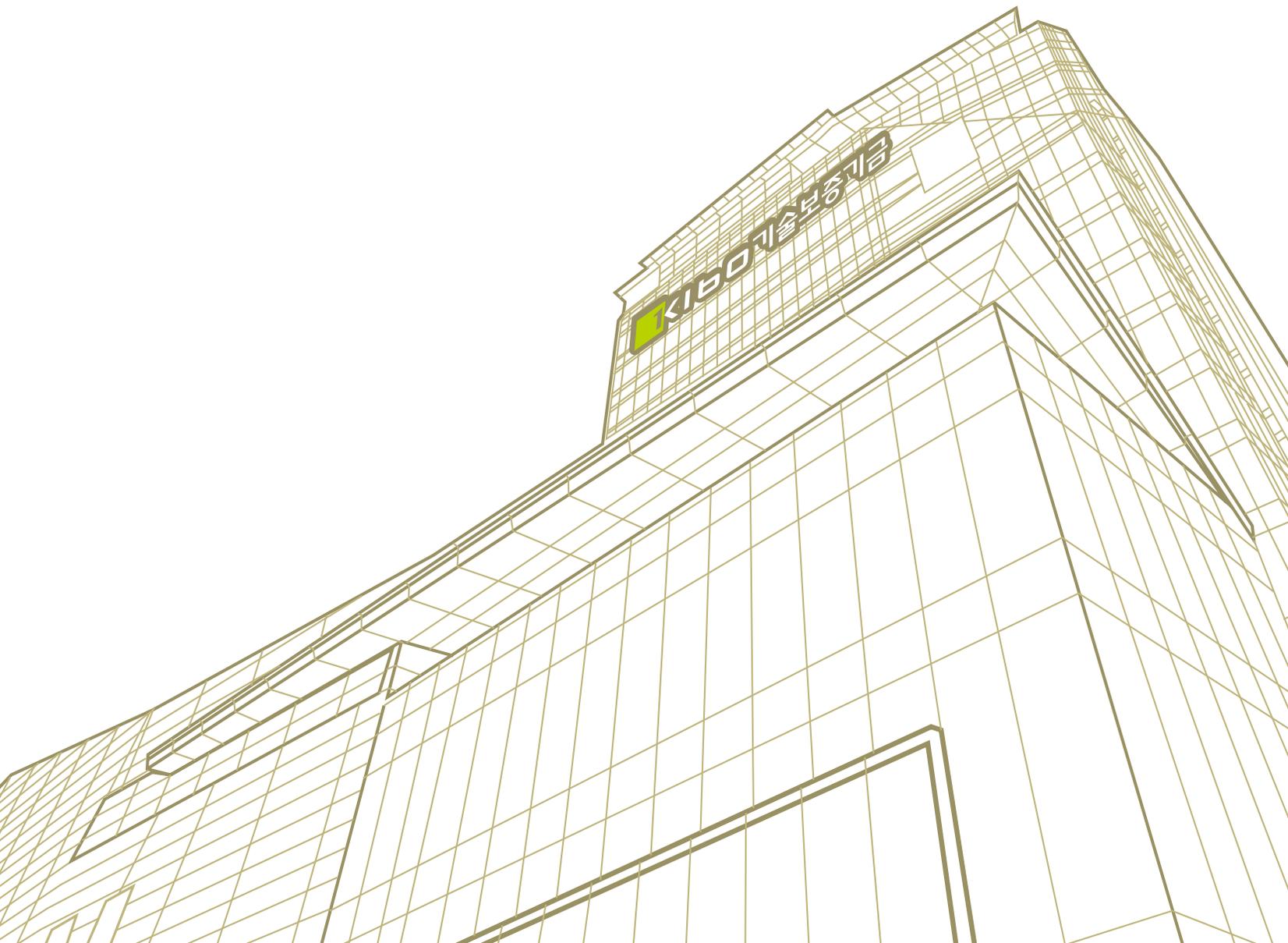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기술이 현실이 되는 길
기보로^路 가능합니다!

KIBO는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기술의 힘'을 믿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인들의 '열정'을 든든히 지원합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키웁니다.

창의와 혁신 그리고 열정의 이름 KIBO!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대한민국 기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2014 UNGC COP



CONTENTS

CEO 인사말

1장 경제 동향 10

2장 중소·벤처기업 동향 20

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26

제1절 개요 26

제2절 일반현황 29

제3절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36

1. 총괄 36

2. 기술보증 41

3. 기술평가 47

4. 보증연계투자 61

5. 기업지원 63

6. 구상권관리·재기지원 67

7. 인재채용 및 인력개발 70

8. 고객만족 72

9. 윤리경영 74

10. 리스크 관리 76

11. 정보화 업무 77

12. 사회공헌 활동 79

13. 국제교류 및 협력 82

부록 85

1. 결산 재무제표 85

2. 상임/비상임이사 88

3. 운영위원 90

4. 주요일지 91

5. 영업점 현황 92



2014 UNGC COP CEO MESSAGE



“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제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UNGC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합니다.

”

지난 해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한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신설 법인수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 국내 벤처기업 숫자도 3만개에 육박하는 등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은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서 금융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시스템이 기업금융의 새로운 평가 메커니즘으로 채택된 점은 이사장으로서 큰 영광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 처음 도입되는 기술금융시스템인 만큼 조기정착을 위해 기술신용평가의 기반이 되는 표준모형 개발과 기술정보 DB 구축부터 기술평가서 작성과 제공에 이르기까지 어느 해 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고, 경제 활력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설립 이후 보증규모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보증확대 기초를 유지해 나가면서 창업기업이나 R&D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과 같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증절차 간소화, 보증제한 최소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을 함께 증진해 나가는 동시에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제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UNGC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합니다.

이번 COP보고서는 기술보증 운영성과, 기술평가 역할 확대를 포함해 기술·경영컨설팅, CEO대상 강좌운영, 기술금융의 해외전파사례 등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성과들을 명료하면서도 충실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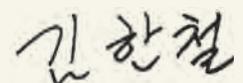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정책금융제도를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데, 그리고 국회·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께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펼쳐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금융을 대표하는 정책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보의 앞날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이사장



기보가 '금융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기보는 기술금융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지난 26년간
국내 기술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금융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기보는 한국형 기술금융 제도를 해외에 전파해
기술금융의 종가(宗家)로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
창조경제의 대표 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201,559^{억원}

2014 연간보증 규모 20조 1,559억원(누적보증액 250조원)

1

경제 동향

제1절 개황

제2절 세계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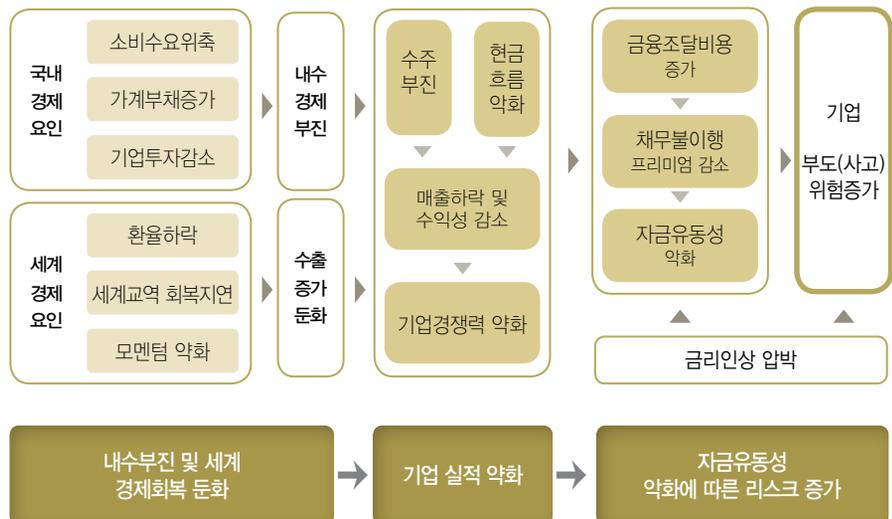
제3절 국내 경제

제4절 향후 국내외 경제 전망

1 개황

2014년 상반기 위축되었던 세계경제는 하반기에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소폭 이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중국도 안정적인 성장을 재개하는 모습으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의 향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기의 상승흐름이 계속되며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자산가격의 거품, 개도국 대규모 자본이동 등 세계교역의 고성장은 힘든 상황이다. 국내경제는 2014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섰지만 경기상승 속도는 과거 회복기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느린 상황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호전되면서 우리 수출이 소폭 개선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축소,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으로 경제회복이 다소나마 개선되었다. 그러나 국내경제의 정체요인(수출, 수요, 환율 등)과 세계경제의 모멘텀 약화(성장률, 교역, 금리 등)로 인해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수주부진, 매출감소, 투자위축에 따른 경쟁력 하락이 기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수판매 위축과 수출 부진이 국내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면서 채산성 악화 및 자금 유동성 하락에 따른 부도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파급효과



2

세계 경제

1. 총괄

미국경제 주도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되었으나 세계경제는 연초 낙관적 기대와 달리 선진국 경기의 급등락 및 개도국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일부 성장세가 다시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연초 한파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성장률이 급등락을 보이고, 유로권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 불안 우려가 지속되면서 역내 경기가 점차 악화되었다. 하반기 들어 선진국의 실물지표들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나,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유로권의 경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갔다. 개도국에서도 중국이 대내 구조개혁 추진과 인위적인 경기부양 자제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주요국의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10월	2015년 1월
세계	3.1	3.5	3.4
미국	2.3	2.7	2.9
중국	7.4	7.2	7.1
일본	0.1	0.9	0.4
독일	1.5	1.3	1.1
영국	2.6	2.6	2.6
브라질	0.0	0.9	0.7
인도	5.3	5.9	6.2

자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주요 국가별 동향



유로지역

2013년 말에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이후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왔으나, 제로 수준의 성장에서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이었으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013년 4분기에 2년여 만에 처음 플러스를 기록하고, 2014년 1분기에는 1%대까지 높아진 이후 성장 탄력이 다소 둔화되었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는 내·외수가 2013년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기준 모두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4년 들어서는 2014년 3분기까지 미약한 수준의 플러스를 유지하였다. 경기 부양 수단이 유럽중앙은행의 초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 확대 등 통화정책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대 디플레 문제와 고실업의 해소 여부가 주요 관건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디플레 해소와 내수 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지표들의 개선 여부가 역대 경기 회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향후 경제상승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2014년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이후, 하반기 들어서는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경제성장률이 2014년 1분기에 전기대비 기준 1%대로 급등한 이후 2~3분기에는 마이너스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성장률의 하락세가 좀 더 뚜렷하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2014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p까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인 이후 낙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은 1분기를 제외하고 제로 수준이 지속되었다.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전후로 불안정한 경기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여파에서 벗어나 엔저(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 기업 실버 투자,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장기 불황 탈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2014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 등 내수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이며, 수출 회복에 힘입어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 1분기에 7.4%까지 떨어진 이후 2분기에는 7.5%로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다가 3분기에 7.3%로 추가 하락하면서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었으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올 들어 각각 8%대와 12%대의 증가율로 2013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연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이어나갔다. 수출은 2014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3.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후, 3분기에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하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구조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외수의 반등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 시, 향후 경제전망에 있어서도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

연초에 사상 초유의 한파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하반기 들어서는 내수 주도의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경제성장률이 2014년 1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2.1%까지 급락한 이후 다시 4%대를 회복하고,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2%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내수가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의 견고한 증가세에 힘입어 연간 2%p의 성장기여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로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하였다. 향후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실물경기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내수 중심의 자율 성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가 주요 관건이다. 이와 더불어 실물경기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종료된 데 이어, 초저금리도 조기에 현실적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논란이 있으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5년 중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리인상 시점으로는 2015년 하반기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신흥경제국

무역적자 등 구조적 문제로 대부분 성장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미 금리인상 압력 속에서 정책 및 개혁의지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차별화가 예상된다. 중국과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은 수년간 경성 및 재정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자원 위주의 수출이라는 문제점에도 노출된 상황이다.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신흥국의 투자비용이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최근 작은 대외 충격에도 금융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으며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신흥국 사이의 차별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개도국 중에서는 정치개혁 기대로 투자 활력이 상승한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브라질 경제는 투자와 소비 활력 저하로 내년에도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경제

국내 실물경기는 연초 예상에 비해 다소 부진한 편이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내수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은 연초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완만하나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향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에 따른 수출감소와 경기부양책 등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수 회복 등으로 2014년보다 오히려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총괄

수출과 내수 모두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가 전망되며,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 중국 성장 둔화, 유로지역의 부진,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주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정부 경기부양 효과가 주요 변수이며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이 우세할 전망이다.

기관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 억달러

구분	한국은행 (2015.4월)		KDI (2015.5월)		LG경제연구원 (2015.4월)		국회예산정책처 (2015.5월)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경제성장률	3.3	3.1	3.3	3.0	3.3	3.0	3.3	3.0
소비자물가	1.3	0.9	1.2	1.7	1.3	0.9	1.3	0.8
경상수지	900	960	892	1,130	871	1,236	892	1,110
실업률	3.5	3.5	3.6	3.6	3.5	3.7	3.5	3.6

자료: ()는 각 기관별 경제전망 발표일

2. 주요 부문별 동향

민간소비

2014년 민간소비는 1분기에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5%를 기록하였으나, 세월호 여파 등으로 2분기부터 1%대에 머물며 다소 부진한 증가세를 보였다. 소매판매액은 2014년 1분기에 25%로 2013년 4분기의 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2분기부터 증가 폭이 축소된 모습을 시현하였다. 재화별로는 상반기 내구재 소비의 증가세가 작년 대비 확대된 반면, 준내구재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비내구재는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물가 안정 등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하면서 연중 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수입물가의 하락세 속에서 소비자물가는 1%대의 안정을 보이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 소득의 실질 구매력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자 수가 3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하는 등 가구의 개선된 소득 기반이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지지하였으나 수출의 증가세가 부진하고, 낮은 가계 소득 증가세는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역할로 작용하였으며 낮은 명목임금 증가세와 실질소득의 불안정한 모습은 민간 소비의 증가 폭을 제약하였다.

설비투자

국민계정 설비투자는 2013년 하반기 이후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4년 3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기계류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운송장비 설비투자도 기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8월 들어 12.9% 감소하였으며 선행지표들의 움직임은 엇갈린 전망을 시사하며 기계 수주는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설비투자 회복을 시사하였다. 반면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 둔화로 올해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정밀기기,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의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설비투자 기업실사지수(BI)도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었다.

건설투자

국민계정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주거용 건물 건설 증가에 힘입어 2014년 3분기에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나 건설기성액은 5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문,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는 회복세인 반면, 공공부문, 토목 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선행지표도 대체로 회복세를 시사하며 건설경기 선행지표 중 건축 수주는 증가세인 반면, 토목 수주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축 허가면적과 착공면적 모두 증가가 지속되었다.

수출입

2014년에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중국 등 개도권 경기의 부진과 하반기 이후 유로권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11월까지 24% 증가에 그치는 등 연초 기대보다는 미약하였다. 수입도 자동차 등 소비재의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이 완만한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였다. 수입 회복세가 연초 기대보다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1~11월 중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보다 확대된 41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후,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속 및 조기 금리인상 기대 등에 따른 달러화의 점진적 강세로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였다. 올해 1,050.3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2014년 3월 말까지 평균 1,069.1원을 기록하였으나, 4월 1,050원선 붕괴 후 7월 연 최저점인 1,008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펀더멘털 호조 및 금리 인상 변수의 영향력으로 반등하면서 12월 11일 1,100.9원을 기록하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연 최저점인 2014년 7월의 1,008.5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년 만에 1,110원대로 9.2%(92.4원) 상승하였다.

통화별 환율 추이

단위 : 원/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1월)	2015(5월)
원/달러	환율	1,070.6	1,055.4	1,099.3	1,093.5	1,108.2
	절상률(%)	7.6	1.4	-4	0.5	-0.8
엔/달러	환율	86.5	105.3	120.4	117.8	123.9
	절상률(%)	-10.1	-17.9	-12.5	2.2	-2.8
원/100엔	환율	1,238.3	1,002.3	913	928.3	894.7
	절상률(%)	19.6	23.5	9.8	-1.6	2.1

주: 절상률은 전년말비 변동률
자료: 기획재정부(통화별 환율 조사통계)

3. 향후 국내외 경제 전망

2015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로지역 및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 마이너스 GDP Gap 지속,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경제는 정부의 경제대책, 내년 중 확장적 예산편성 효과, 낮은 금리수준, 소비 위축 등에 따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도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에 비해 고용확대 감소, 저물가 흐름 유지, 경상수지 흑자, 시중금리의 완만한 상승, 달러화대비 약세이나 다시 강세 기조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충격이 나타날 경우 성장세가 전망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저해요인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기업들이 저성장, 저수익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투자부진이 성장을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고질적인 낮은 생산성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다. 소득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증가와 기업 대출 증가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며 대출증가의 절반을 생활비나 창업으로 충당하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주택경기의 미약한 회복 속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기마다 차츩있던 환율은 해외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는 수출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자원 수출국의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재정 건전성도 경기부진 기업수익성 약화 등으로 4년 연속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 복지지출 등 구조적 세출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가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기보는 지난 26년간 벤처기업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 시대를 앞당기고
실물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힘껏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여
창업투자 손실을 막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41,000 천억원

■ 일자리창출 기업을 위한 보증 4.1조원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청년창업기업 보증 1조원

A large, stylized number '2' is centered on the page. The background is a dark blue gradient with a faint image of an industrial robot arm in a factory setting. The robot arm is orange and black, and it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extending towards the center.

2

중소 · 벤처기업 동향

제1절 중소기업

제2절 벤처기업

제3절 이노비즈기업

2012년 이후 저성장 장기화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은 벤처·이노비즈·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은 물론 기술평가보증의 지속적인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종합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2009년 하반기부터 그간의 하강세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생산지수 및 평균가동률이 증가하였다가 유로지역 경기부진 장기화, 주요국 재정위험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및 국내 내수회복의 지연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상승세가 완만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연간 신설법인수는 84,697개(2014년 말 기준)로 전년(75,578개)대비 12.1%(9,119개)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부도업체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악재로 인한 글로벌 신용위기 등으로 급등한 후 2009년부터 연속 감소세로 이는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 경기전망 및 기업인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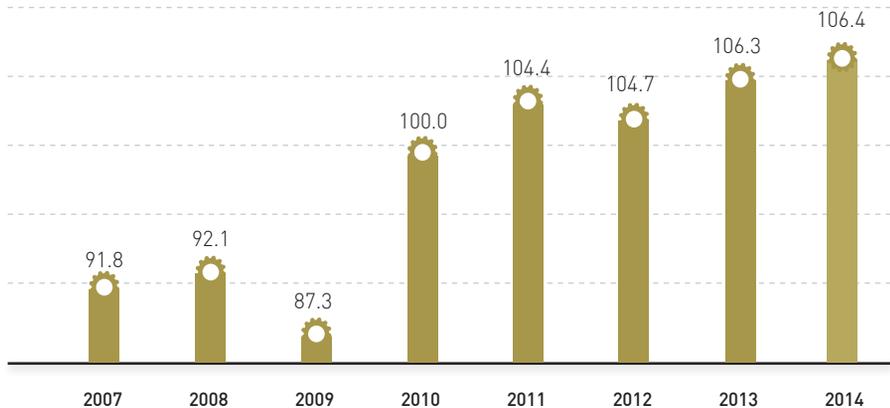
중소기업 주요 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지수(%)	91.8	92.1	87.3	100.0	104.4	104.7	106.3	106.4
평균가동률(%)	71.0	64.1	70.9	72.0	72.1	70.3	72.3	72.5
신설법인수(개) (월평균)	53,483 (4,457)	50,855 (4,238)	56,830 (4,736)	60,312 (5,026)	65,110 (5,426)	74,162 (6,180)	75,578 (6,298)	84,697 (7,058)
부도업체수(개) (월평균)	2,301 (191)	2,735 (228)	1,998 (166)	1,570 (131)	1,359 (113)	1,228 (102)	1,001 (83)	841 (70)
어음부도율(%)	0.02	0.02	0.03	0.03	0.02	0.02	0.02	0.02
중소기업수출액(억달러) (전년대비증가율, %)	1,135 (9.5)	1,305 (15.0)	768 (△41.1)	986 (28.4)	1,016 (3.0)	1,029 (1.3)	95.8 (△6.9)	-

* 생산지수는 기준연도인 2010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됨

**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생산지수



2 벤처기업

정부는 「벤처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술력과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인력, 입지 등 유·무형의 각종 혜택을 부여해왔다. 1998년 도입한 이후 2001년 7월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했으나 IT산업 등의 경기침체 등으로 2002년부터는 감소하다가, 2004년 4월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2006년 6월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벤처기업 확인 기능을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전면적인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2008년에는 벤처기업 수가 1만5천 개로 증가하였다.

2010년 4월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우량 중소기업은 보증이 필요없음에도 벤처확인을 위해서 기술평가보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보증금액이 아닌 기술평가보증 가능 결정금액으로도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기업 수가 2010년 5월 2만 개를 돌파한 이후 2014년 말 29,910개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평가보증 위주의 보증지원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과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정책 수혜 등을 위한 인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업체수(개)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자료 : 벤처인 2014년 말 기준

업종별 벤처기업은 71.2%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외 S/W업종에 16.4%가 분포되어 있다.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계
업체수(개) (구성비)	21,282 (71.2%)	4,906 (16.4%)	325 (1.1%)	3,398 (11.3%)	29,910 (100%)

*자료 : 벤처인 2014년 말 기준



또한, 지역별로는 업체의 57.5%가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구분	경기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	대전·충남	경남	인천	광주·전남	기타	계
업체수(개) (구성비)	9,206 (30.8%)	6,633 (22.2%)	3,064 (10.2%)	2,550 (8.5%)	2,089 (7.0%)	1,735 (5.8%)	1,370 (4.6%)	1,222 (4.1%)	2,041 (6.8%)	29,9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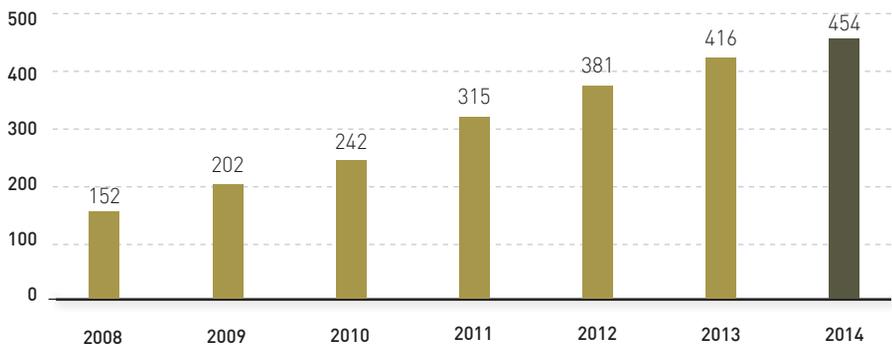
*자료 : 벤처인, 2014년 말 기준

벤처기업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천억기업 수가 2014년(2013년 결산 기준) 454개로 2013년 대비 9.1%(38개사) 증가하는 등 벤처산업의 성장기반이 견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추이

구분 (결산년도)	2008 (2007)	2009 (2008)	2010 (2009)	2011 (2010)	2012 (2011)	2013 (2012)	2014 (2013)
업체수(개)	152	202	242	315	381	416	454

2014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벤처천억기업 454개 중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347개 기업에 총 2조5,692억원의 신규보증 지원이 이루어져 이중 233개사(75.9%)는 보증 졸업했고, 93개사(24.1%)는 보증잔액 2,238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중 기업공개된 기업은 133개 업체로서 최초보증 취급 당시 30개 업체, 보증거래 기간 중 133개 업체, 보증졸업 이후 31개사가 IPO에 성공하여 보증이용기간 중 성장·성숙 과정을 거쳐 IPO 기반을 마련했다.



벤처천억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보증졸업기업		보증거래기업		합 계	
	업체수	신규공급	업체수	신규공급	업체수	신규공급
보증현황 (구성비)	293 (75.9%)	18,397 (71.6%)	93 (24.1%)	7,295(2,238) (28.4%)	386 (100%)	25,692 (100%)

*()는 보증잔액임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기술금융 지원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3 이노비즈기업

21세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 진전에 따른 국제적 기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청기업이 증가하여 2014년 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16,878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을 받았다.

연도별 이노비즈기업 선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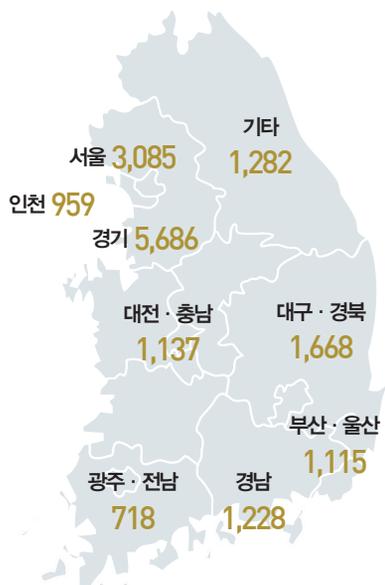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업체수(개)	14,626	15,939	16,243	16,944	17,298	17,080	16,878

*자료: 중소기업청

업종별 분포

구 분	기계금속	전기전자	S/W	정보통신	화학	기타	계
업체수(개)	4,515 [26.8%]	3,338 [19.8%]	1,257 [7.4%]	1,048 [6.2%]	1,174 [7.0%]	5,546 [32.8%]	16,878 [100%]

*자료: 중소기업청, 2014년 말 기준



이노비즈기업
2014년 총 16,878

기계금속 4,515	전기전자 3,338	SW 1,257	정보통신 1,048	화학 1,174	기타 5,546

지역별 분포

구 분	경기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	대전·충남	경남	인천	광주·전남	기타	계
업체수(개) (구성비)	5,686 [33.7%]	3,085 [18.3%]	1,668 [9.9%]	1,115 [6.6%]	1,137 [6.7%]	1,228 [7.3%]	959 [5.7%]	718 [4.2%]	1,282 [7.6%]	16,878 [100%]

*자료: 중소기업청, 2014년 말 기준

기보가 도전하는 기술기업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보는 탄탄한 기술 평가 인력과 시스템으로 기술 금융을 선도합니다.

기보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와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술평가조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축적되지 않아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기술창업 중소기업 발굴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고

기업인들이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9,000 건

■ 기술신용대출을 위한 기술평가서 9,000건
(2014년 4,000건)

3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일반현황

제3절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1

개요

1. 역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설립 이후 26여 년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총 25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연계한 투자, 기술·경영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재무구조는 취약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보증지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R&D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적극 발굴하여 기술혁신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융자에서 투자로까지 확대되는 금융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보증과 투자가 결합된 '투자옵션부보증' 제도 시행, 국가 R&D 연구성과의 수집 및 관리, 기술의 수요/공급 매칭 및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기술매칭시스템(KTMS) 구축, 공공기관 유일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참여 등의 선제적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기보는 기술·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보의 기술평가정보가 공공 및 민간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위험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기 진작과 함께 미래성장동력 지속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 설립목적

- ①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②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3. 주요 연혁

- 1980** 1989. 4. 기술보증기금 설립 ('86. 12월 기금설치)
- 1990** 1994. 2. 기술우대보증제도 시행
1997. 3.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개소
1998.11. '98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1999. 2.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 2000** 2002. 8. 기술평가 및 기술지도 업무 법제화
2004. 8. 총 보증지원 100조원 돌파
2005. 4. 중앙기술평가원 개원
2005. 7. 新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2006. 5. 'NEW CI' 제정
2006. 6. 벤처기업 확인기관 선정
2006.10. '06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2007. 1. 보증프로세스를 기술평가보증으로 일원화
2007. 4. 기술평가시스템(KTRS) 국내특허 취득
2007. 6. '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1위
2008. 1. 전 지점을 기술평가센터로 전환
- 2010** 2010. 6.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4년 연속)
2011. 5. 부산 문현국제금융단지 본점 입주
2011.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6년 연속 우수)
2011.12. 총 보증지원 200조원 돌파
2012.06. 보증연계투자를 기금 고유업무로 하는 기금법 개정·시행
2014.06. 공공기관 유일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선정
2014.12. 누적보증공급액 250조원, 보증규모 20조원, 거래기업수 6.6만개 돌파

4. 비전 및 전략



2

일반현황

기보는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기본재산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경제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재원으로써 자본금인 동시에 대위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의 성격이며,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1. 기본재산과 운용배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2. 정부의 출연금
- 3. 제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기보에 출연(2013년 600억원, 2014년 500억원 전입)하는 것으로, 기술·창업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다.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및 신용도 파악에 필요한 취급비용을 절감하고 자금공급에 수반되는 위험을 제거하며 향후 채무상환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보증이용의 대가적 성격과 기술중소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를 기보로부터 대위변제받는 기술보증에 대한 일종의 분담금 성격이다. 금융기관은 출연기준 용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연율 1만분의 1.35±차등요율,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분기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3을 출연하고 있으며, 별도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도 특별출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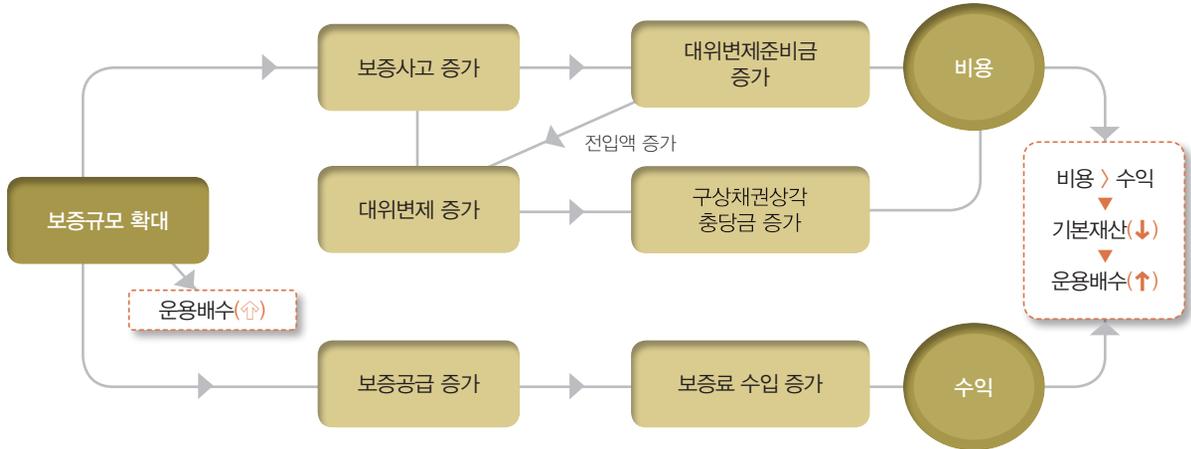
기보의 기본재산은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 여력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청구에 대응하는 공신력 확보 등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에 의해 조성되는 기본재산 및 보증료, 손해금, 예치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이익금은 먼저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보의 운영상 필요한 비용

에 충당하고, 여유금은 금융회사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금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기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4조>

2014년도는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와 사고율 안정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보증회계준칙의 제정·시행으로 '11년 이후 전체 보증잔액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함에 따라 기본재산은 전년말 대비 1,204억원 감소한 22,5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운용배수는 일정시점에서의 기술보증규모를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된 값(배)으로 대위변제 청구에 즉시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정부정책 및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여력 등을 가능하는 지표이며, 보증규모, 사고율 및 대위변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운용배수는 보증제도의 최대장점인 승수효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증운용의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8.9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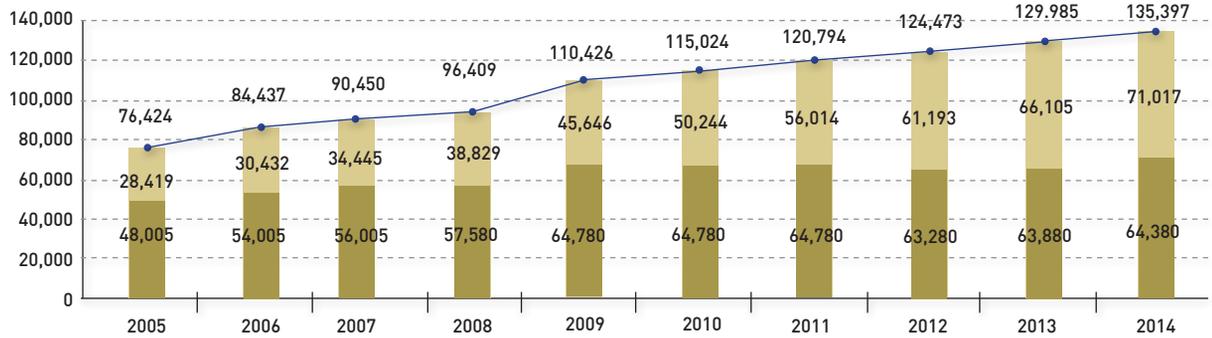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화



최근 10년간 출연금 누계액 현황

■ 정부출연금 ■ 금융기관출연금 ● 총출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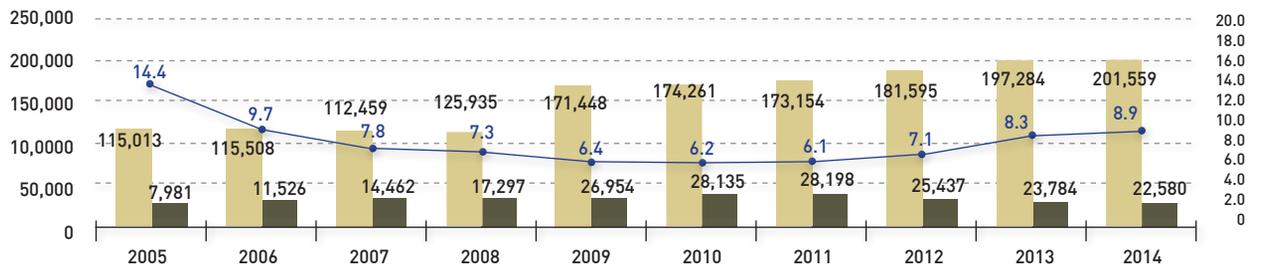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최근 10년간 주요 경영지표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운용배수

단위 : 억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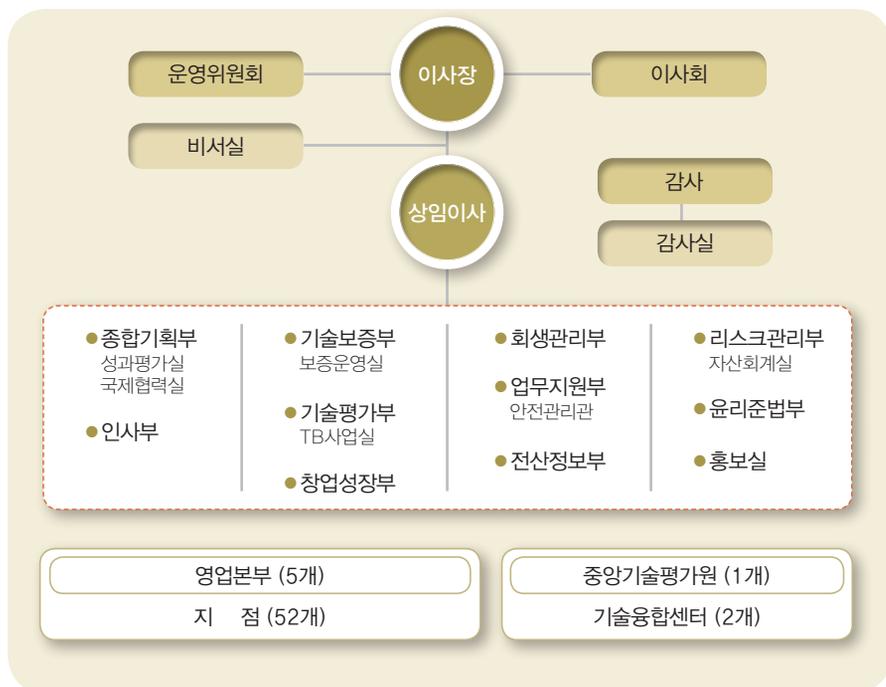
2. 조직 및 인원

본부부서는 정책환경(윤리경영, 정보보호 등)에 부합하는 업무 강화 및 창조경제 추진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 본부 조직개편 : '13년 11부 2실 4부속실 → '14년 10부 2실 6부속실 ▶

영업조직은 현장경영 강화, 창업지원 확대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해 5개 영업본부 설치 및 기술융합센터(2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직 현황



2014년 말 현재 기보의 조직은 본부(10부 2실) 및 영업점(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융합센터 2개, 영업본부 5개, 지점 52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임원 6명, 별정직 78명 등을 포함하여 총 1,1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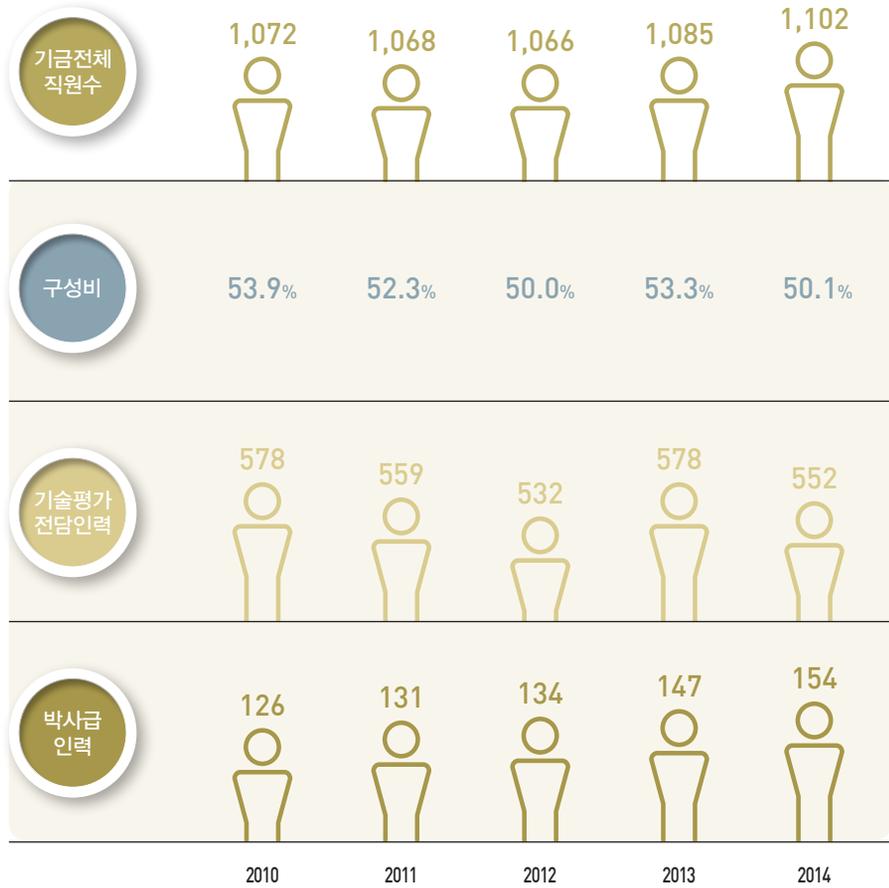
인원 현황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평가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기술평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술평가사 등 552명의 기술평가 전담인력(박사급인력 154명)을 확보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평가사 및 박사급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기술평가 관련 인력변동 추이

단위 : 명, %



주) 박사급인력에는 기술평가사 1급이 포함되어 있음.

3. 주요 업무 등

기보의 주요 업무는 핵심업무인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관리 업무와 부수업무인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기술혁신지원 업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업무

핵심업무

기술
보증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중소기업이 창업, R&D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일반보증 신규지원 중단('04.8월)

기술창업보증 ▶ 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혁신형보증 ▶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녹색,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 기업 등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보증 ▶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
평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투·융자 등 다양한 목적의 기술금융 지원 수단으로 활용

기술가치평가 ▶ 당해 기술에 의해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가치를 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연계
투자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지원
- 주식인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구상권
관리

보증부실 발생시점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구상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관리
- 채권보전,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 및 임의상환 유도 등

부수업무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기술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경영 및 기술진단, 기술자문, 창업교육, 창업강좌 및 연수, 판로개척, 멘토링제도,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M&A 등

기술혁신
지원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선정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 인증

기보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며, 특히 벤처·이노비즈기업, 창업초기기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을 기보의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기술금융을 우대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중점지원부문으로 설정하여 부문별 목표(Quota)를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이들 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있다.

핵심고객

-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고위험과 고수익성이 수반되는 **벤처기업**
-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이노비즈기업**
-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창업초기기업
- 우수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R&D기업
- 녹색성장산업, 지식·문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미래성장 유망업종(6T)**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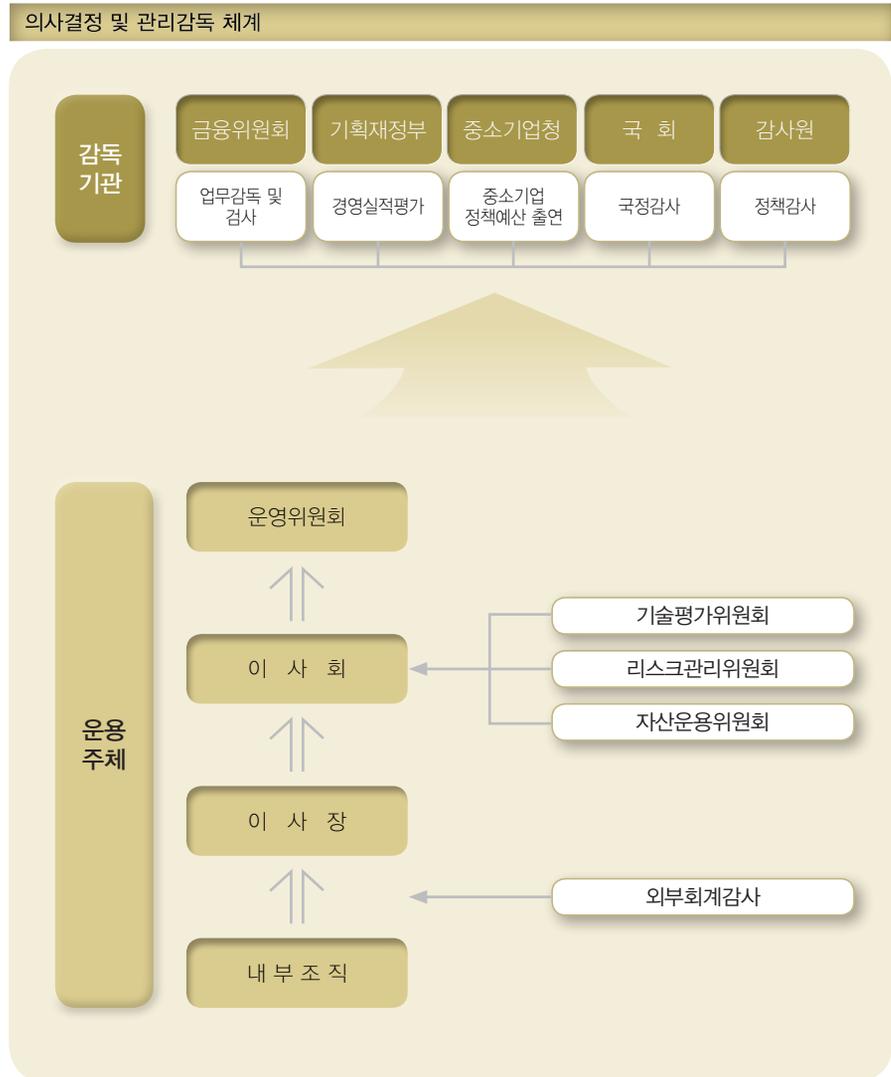
벤처기업

-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유형
 -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 연구개발기업
 - 벤처투자기업

이노비즈기업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기업 요건
 -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기술혁신시스템 평점이 700점 이상이고 기술사업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기보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감사원법, 국회법 등 기본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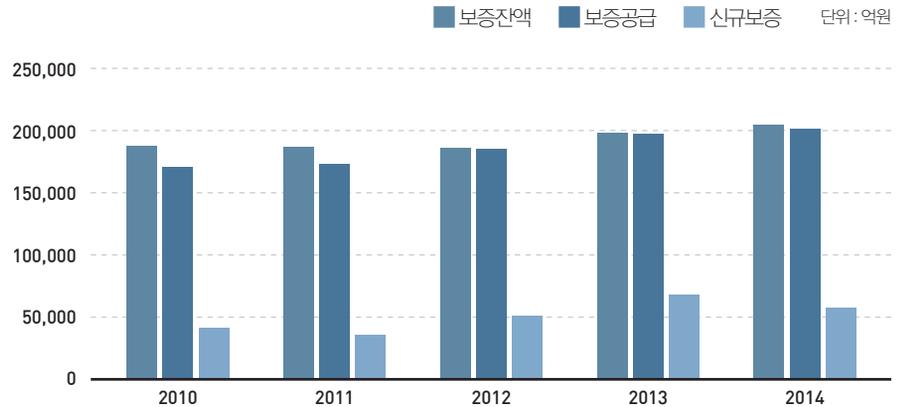
2014년 세계 및 국내 경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약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및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보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부문을 집중 지원하였고, 기술평가인프라를 확충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도 기술력 중심의 신용대출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상권 회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였다.

1. 총괄

기술보증

기보는 설립 이후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5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공급하여 기술중소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2009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보증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한계기업, 장기·고액보증기업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2014년도의 총보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4천억원 증가한 20.2조원을 유지하였다.

기술보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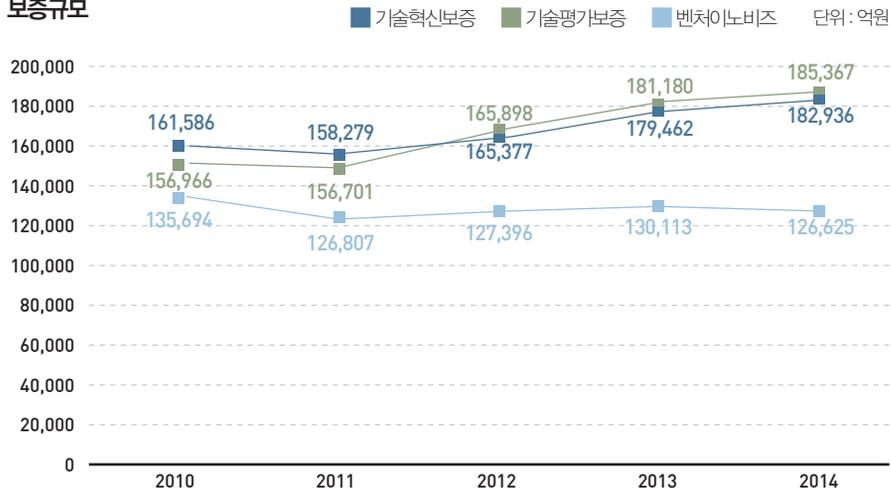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보증잔액	174,261	173,154	181,595	197,284	201,559
보증공급	169,336	169,173	180,775	196,591	200,781
신규보증	42,860	41,396	52,354	60,184	53,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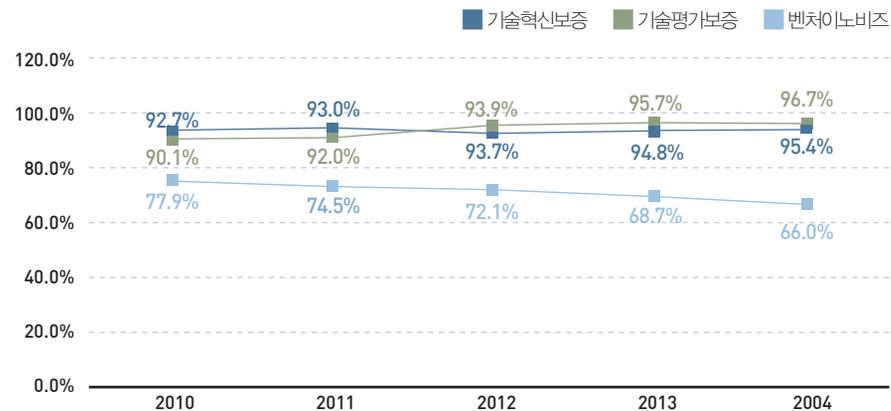
2005년 6월 이후 보증총량 위주의 양적확대에서 탈피하여 리스크는 높으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보증대상 기업을 특화하였으며,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통해 과거 재무실적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평가보증 및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기술보증 현황

보증규모



보증비중의 변화



기술창업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자

신성장동력산업 정부확정 3대 분야 17개 산업의 대표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R&D활성화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세분화하여 신청기술 및 자금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3대 중점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였으며, 창업초기·기술벤처에 대한 367억원의 투자지원을 통해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체 신용으로는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운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으로 유동화회사보증 4,749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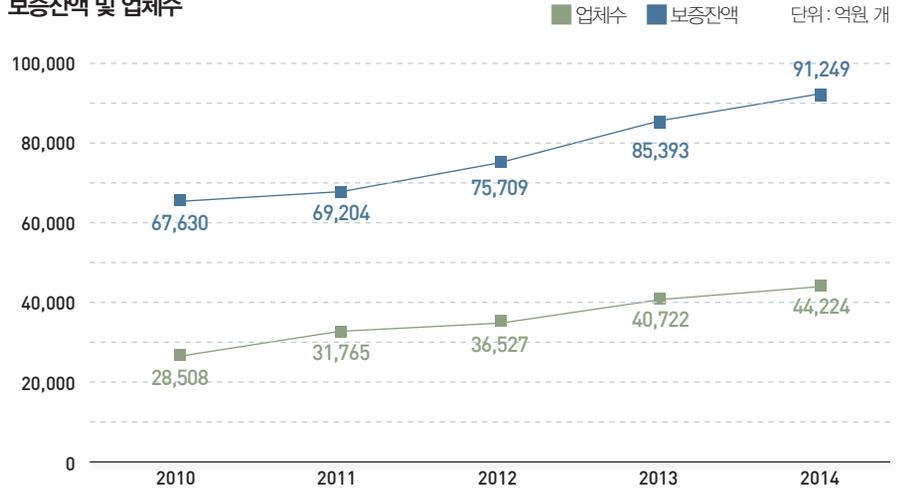
단위 :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계획	실적
기술창업기업	76,244	87,142	73,000	91,928
신성장동력산업	44,921	57,742	52,000	61,046
R&D활성화	16,340	24,022	24,000	29,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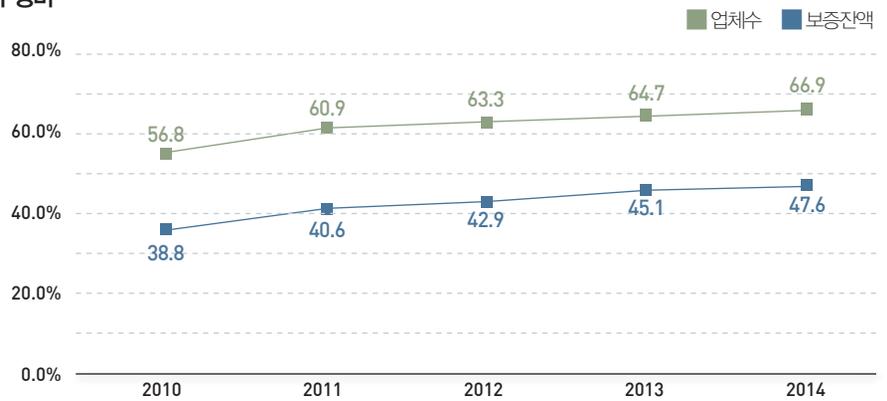
특히,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 68조원이었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2014년 말에는 9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총보증 대비 기술창업기업 보증잔액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창업기업 보증현황

보증잔액 및 업체수



구성비



기술평가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기보는 1997년 3월 최초로 기술평가를 시행한 이후 매년 평가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까지 총 454,097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고, 기술평가로 누적 수입금액은 2,492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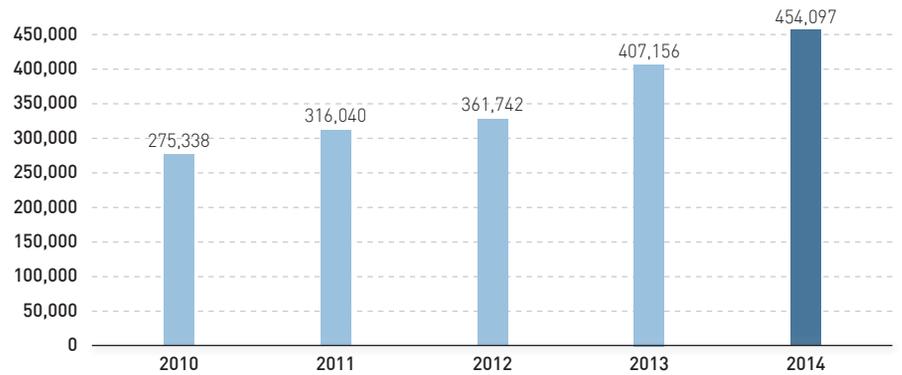
기보 기술평가 시스템의 활용범위

<p>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보증 기술기반 신용대출 보증연계투자 지원 	<p>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녹색기술 인증 	<p>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지원 평가 R&D 경제성 평가 	<p>특허 등 무형자산 가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이전 및 M&A 현물출자 특허권 담보설정
--	--	--	--

기술평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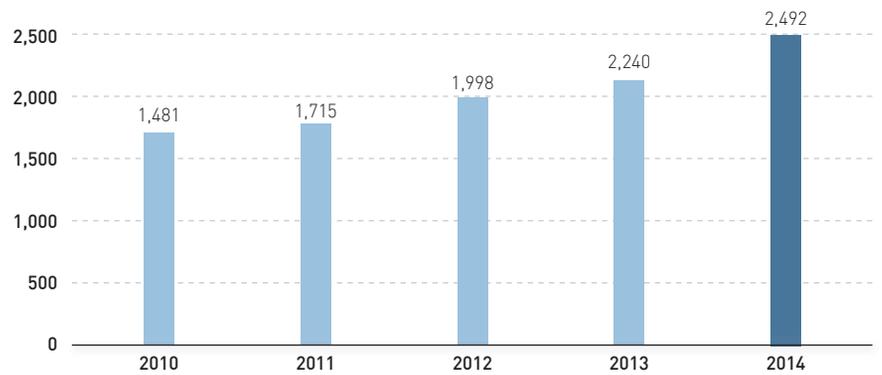
기술평가 건수(누계)

단위: 건



기술평가료(누계)

단위: 억원



단위: 건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술평가 건수	39,968	40,702	45,702	45,414	46,941
누계	275,338	316,040	361,742	407,156	454,097
기술평가료	228	235	283	242	252
누계	1,481	1,715	1,998	2,240	2,492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보증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사후관리와 구조개선 및 실패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증자산의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율은 2004년 12.9%로 고점을 찍은 후 2006년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되어 2014년 사고율은 4.4%를 기록하였다.

사고순증금액 및 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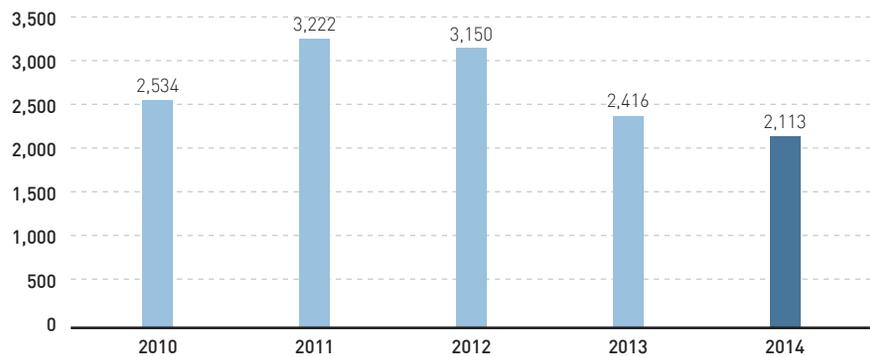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고순증금액	11,659	6,791	6,050	7,679	7,420	8,184	8,715	9,026	7,551	8,802
사고율	10.1	6.1	5.4	6.1	4.3	4.7	5.0	5.0	4.0	4.4

정부의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반영하여 실패예방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파산신청 등 채무면책 증가, 연대보증인 축소 등으로 구상권 회수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구상권 회수지원 발굴노력 강화, 회수가능성 위주 채무자별 차별화전략 및 공공기관보유 정보활용의 정례화 등을 시행하고, 다양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구상권 회수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장기미회수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상각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도모하였다.

연도별 구상권 회수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상채권 잔액	16,982	18,042	19,641	18,594	19,076
구상권 회수	2,534	3,222	3,150	2,416	2,113

2. 기술보증

기술보증지원

총보증지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재도약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보는 기술금융 전문 공적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기술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기술금융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지식문화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원 타당성이 높은 기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9조 6,032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규모는 20조 1,559억원으로 전년대비 4,275억원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일자리창출기업,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총 보증공급 대비 비중이 2013년보다 0.4%p 증가한 95.3%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간접시장에 편중된 중소기업 대출을 직접금융시장으로 확대한 우수기술 유동화보증 또한 4,749억원 규모로 발행하였다.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창업기업에 보증지원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신규공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2	비중	2013	비중	2014	비중
총보증공급	178,588	100.0	193,539	100.0	196,032	100.0
기술혁신기업	167,512	93.8	183,727	94.9	186,756	95.3
벤처기업	111,459	62.4	115,860	59.9	111,718	57.0
이노비즈기업	83,730	46.9	78,123	40.4	70,867	36.2
창업기업	76,244	42.7	87,142	45.0	91,928	46.9
기술평가보증	167,008	93.5	184,625	95.4	188,832	96.3
지식문화산업	25,402	14.2	30,843	15.9	31,519	16.1
일자리창출기업	37,301	20.9	44,887	23.2	41,827	21.3
신성장동력산업	44,921	25.2	57,742	29.8	61,046	31.1
유동화회사보증	2,187	1.2	3,052	1.6	4,749	2.4
총보증잔액	181,595	-	197,284	-	201,559	-

기술혁신기업 보증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2014년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18조 6,756억원으로 2013년 18조 3,727억원 대비 3,029억원 증가하였고, 총보증공급 대비 지원비중도 95.3%로 2013년도 94.9%보다 0.4%p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창업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창업 분위기 확산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신기술사업자로서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및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에는 7조 6,244억원(42.7%), 2013년에는 8조 7,142억원(45.0%), 2014년에는 9조 1,928억원(46.9%)을 지원하는 등 점차적으로 그 규모 및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술평가보증

기술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기보는 기술혁신기업 금융지원에 최적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으로 전년도 18조 4,625억원(95.4%) 대비 4,207억원(2.1%p) 증가한 18조 8,832억원(96.3%)을 지원하는 등 기술평가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상생협력 강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보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지원을 선도하게 되었다. 또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견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상생펀드(대기업·발전회사(18), 시중은행(3), 관련협회(3) 공동 조성) 추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2014년 중 111개 업체에 728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금에 상생보증 추천권을 부여토록 제도 개선(2012. 9월) 이후 기금에서 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추천하여 상생보증 수혜 기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였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 보증지원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 보증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지원규모	353	734	728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분위기 조성

창업단계별 체계적인 창업지원제도 운영

우수기술·아이디어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 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지원규모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즉시 창업 전에 제시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를 운용하여 '14년에는 예비창업자 957명에게 1,149억원의 창업자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이 중 창업을 한 870개 기업에 964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특히 '14년에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후에도 사업성과, 애로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안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를 개선하였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산업 지원 확대**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보증 지원 확대

미래성장 기반 조성 및 고용 없는 성장 극복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유형에 따라 '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철타러창업, 40·50 창업, 1인 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 지식재산권창업' 등 7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성장 보증」을 통해 10,240개 창업기업에 2조 2,532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액 창업기업 위주로 기술보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매출액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창업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총 11,967개 창업기업에 2조 7,279억원(전체 신규공급 5조 58억원의 54.5%)을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 평가로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업분위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식문화산업 보증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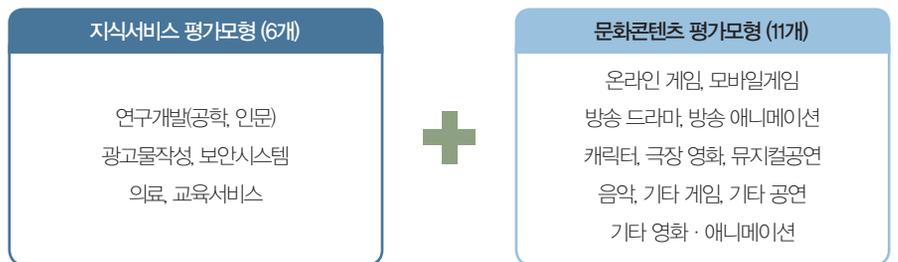
지식·정보화시대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보는 Post-제조업 성장엔진으로서 지식집약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금융으로 흡수 가능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부문'을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지식문화산업 보증잔액 비중을 2015년까지 1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신성장 지식문화 관련업종을 기술금융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능동적 제도개선 및 지속적 보증지원 확대 노력을 경주하여 2014년 보증잔액 비중은 16.1%(계획 15.0%) 수준을 달성하였다.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

새로운 사업영역인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원교육훈련, 산업특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현업 적용도 및 기술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의료·교육서비스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하는 등 지식문화산업 관련 기술평가모형 세분화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제고 및 기술평가 전문성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식문화산업 평가모형



또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8월에 도입한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의 용역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간의 고질적인 금융갭(gap) 해소 및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사업수행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2009~2014)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를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 제작지원과 투자유인을 위해 2009년 9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한 이후, 고객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산업완성보증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콘텐츠(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융합CG) 및 한류콘텐츠(수출용)에 대한 제작비 지원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하였고, 제작역량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상환조건을 면제하고 수익금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완성보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시행 이후 SBS에서 방영된 뿌리깊은 나무, MBC에서 방영된 빛과 그림자, 불의 여신 정이, KBS에 방영된 왕가네 식구들 및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 위키드 등 177개 문화콘텐츠에 1,725억원의 제작자금을 지원하였다.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현황 <누적>

단위: 억원

구분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디지털콘텐츠	공연	캐릭터	합계
프로젝트(개)	52	14	75	6	1	27	2	177
지원금액	579	90	739	40	7	258	12	1,725

공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보증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기술혁신기업에 효과적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기업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동반성장 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에 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최초로 시행된 후, 2011년 상반기에 신한은행 등 10개 금융기관과 2차 협약, 2013년 상반기에 국민은행과 3차 협약을 체결하여 확대·시행 중이며, 기술창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013년 상반기 국민은행과 예비창업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등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특별출연금	60	880	289	50	50	3,222
보증지원	3,674	10,450	4,101	1,375	1,236	39,537

* 사실자금 후취 해지 후 금액 기준임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대·중소 상생보증」은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 현대자동차 등 3개 대기업 및 2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2009년 4월 삼성전자 등 9개 대기업 및 3개 금융기관으로 협약을 확대·시행 중인 제도로서, 협약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특별출연금	1.6	3.2	7.2	28.5	19.8	184.8
보증지원	19	58	318	352	124	2,838

**고객중심의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신용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보증거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초 상담단계에서 보증취급이 명백히 어려운 기업 외에는 현장조사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증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보증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증신청, 상담·접수, 채심 등 각 단계별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기하였다.

기업이 보증기한 연장 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기한연장센터의 녹취시스템을 활용하여 무방문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편의를 증대시켰고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제경영자 1인만을 입보하게 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활성화 등 금융환경 혁신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서류제출 간소화로 4대보험 관련 증명서를 기보에서 행정정보공공동망을 통해 직접 수집이 가능하게 하여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세무증명서를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를 신설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향상 및 영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보증부대출 금리 상시모니터링 및 보증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한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보증부대출의 보증약관을 개정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차단하였고, 최근 3개월 보증부대출 실행금리를 업체맞춤형으로 조회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비교하기 위한 대고객 보증부대출 금리 공시시스템인 '금리알리미'를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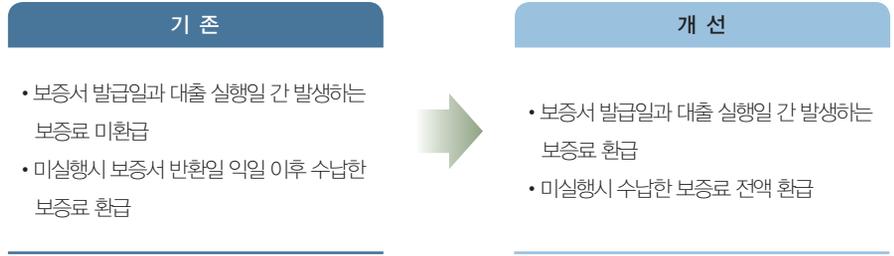
이에 추가로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고금리 보증부 대출건은 채권은행에 소명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에 점검을 요청하고 있다.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한편, 보증서는 발급되었으나 실제 보증을 미사용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보증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증서 발급 후 미실행 해지 시에는 수납한 보증료는 전액환급하고,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실행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보증료는 환급하도록 보증료 부과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보증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 보증료 부담 완화



연대보증제도 개선

창업 활성화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2012.5월)하여 개인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는 실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바, 지하경제 양성화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대폭 개선(2013.7월)하여 비공식적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경영자에 한하여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 실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수가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다. 이와 함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를 시행(2014. 2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창업기업에 대하여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함으로써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해 창업의욕을 고취하였다.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수

단위:명

구 분	2011(개선 전)	2012(1차개선 후)	2013(2차개선 후)	2014
개인기업	0.27	0.17	0.09	0.06
법인기업	1.55	1.14	1.07	1.03



3. 기술평가

기술평가 개요

기술평가 개념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 유형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운용된다.

평가구분	정 의
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등급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평가의 범위

기술평가 범위는 평가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술평가사업 운영현황

사업경과

기보는 1997년 3월 국내최초로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평가업무를 도입한 이후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新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벤처기업 확인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최고의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기술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990

- 1997. 3 기술평가센터 개소
- 1997. 5 특허기술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발명진흥법)
- 1997. 10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가액 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1998. 8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1998. 11 외국인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외국인투자촉진법)
- 1999. 2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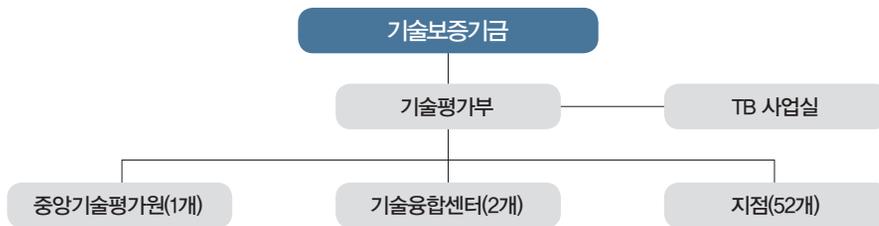
- 2001.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술평가·기술거래 전문기관(기술이전촉진법)
- 2001. 7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심사참고용 기술평가기관(한국증권업협회)
- 2001. 8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중소기업청)
- 2004. 9 기술평가인증제도(대내용) 시행
- 2005. 7 신(新)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 2007. 4 기술평가모형 KTRS 국내 BM특허 취득
- 2008. 4 기술평가모형 KTRS 국제특허(PCT)의 개별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록 출원
- 2009. 10 창업기업용 기술평가모형(KTRS-Startup) 국내특허 취득

2010

- 2010. 4 정부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 2010. 10 KTRS피드백 시스템 국내특허 취득(2건)
- 2011. 1 KTRS 고도화 연구용역결과 적용·시행(KTRS-V2.0)
- 2012. 11 녹색기술·산업 특성에 차별화된 녹색기술평가모형(GTRS) 개발
- 2013. 12 KTRS계열모형 개선 및 체계 재정립(연구용역결과 적용)
- 2014. 6 기술산용평가기관(TOB)으로 지정
- 2014. 9 기술가치평가 방법 및 평가 노하우에 대한 BM특허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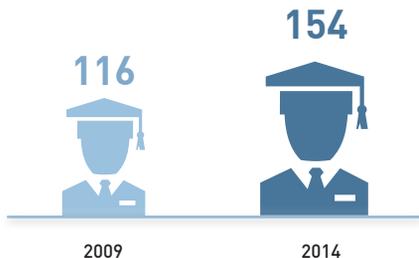
기술평가 조직 및 인력

증대되는 평가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4년 말 현재 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융합센터 2개, 영업본부 5개, 지점 52개를 설치함으로써 특화된 기술평가·금융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구 분	역 할	주요업무
중앙기술평가원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평가 품질관리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융합센터 지원 등
기술융합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거래·M&A 관련 전문기술평가(수반보증 포함) 기술거래 수요발굴 및 중개·마케팅 업무 기술정보 수집 및 가공,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영업본부	지역 내 기술평가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기술평가센터 지원 활동 보증미수반 기술신용평가, 보증미수반 기술평가인증
지점	정형화된 기술평가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보증(지식재산보증, R&D보증 등) 정부 R&D 경제성 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기술신용평가,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등

박사급 인력 추이(단위 : 명)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금전체직원수(명)	1,056	1,072	1,068	1,066	1,085	1,102
기술평가 전담인력(명)	586	578	559	532	578	552
박사급 인력(명)	116	126	131	134	147	154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 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점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앙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3급 이상 자격자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전문위원 Pool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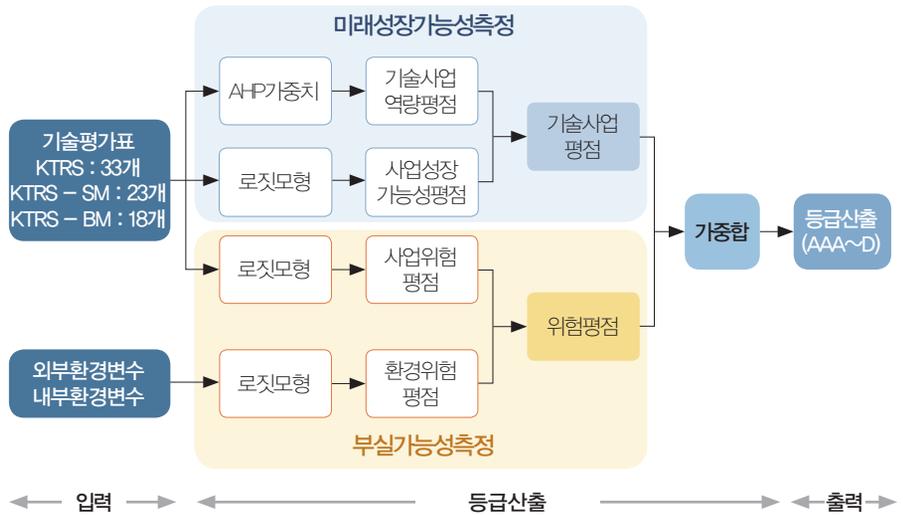
기 계	정보 통신	전기·전자	재료·금속	항공	섬유	생명 (BIO)	환경	재무 회계	특허 법률	문화 콘텐츠	기타	계
173	129	132	89	83	13	97	36	156	48	52	66	1,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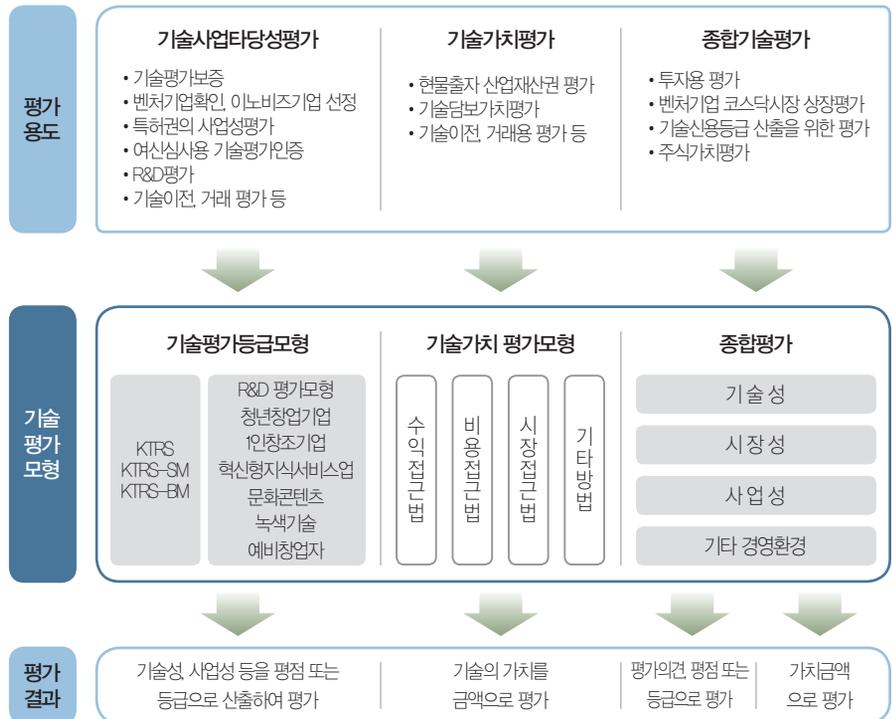
기술평가 시스템

기보는 재무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선별·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등급화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KTRS는 기술사업의 미래 성공가능성 및 기술기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으로, 2006년 7월 기금 업무에 전면 도입후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으로 사고율 및 리스크 예측치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가능한 다양한 기술평가모형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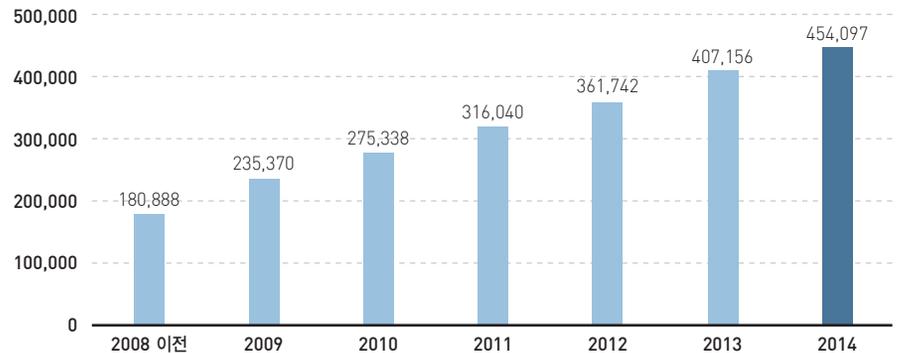


기술평가 수행실적

1997년 2월 기술평가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4년 말까지 총 45만여 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도별 기술평가건수(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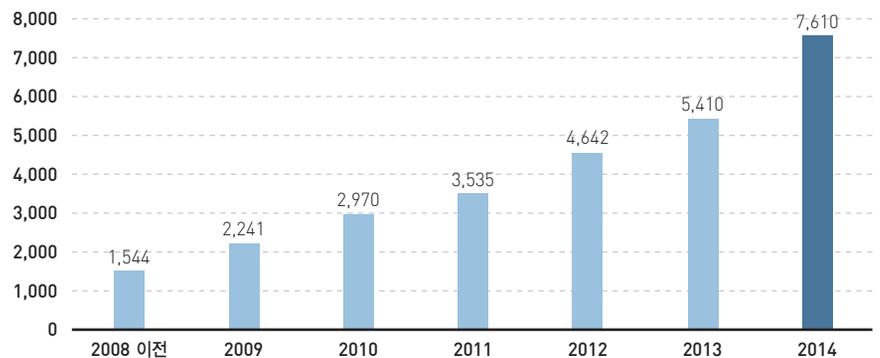
단위: 건



특히, 기술평가 중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술평가'와 '건당 평가료가 2백만원 이상인 민간부문 기술평가'는 일반평가보다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기술평가로서 국내 기술평가 시장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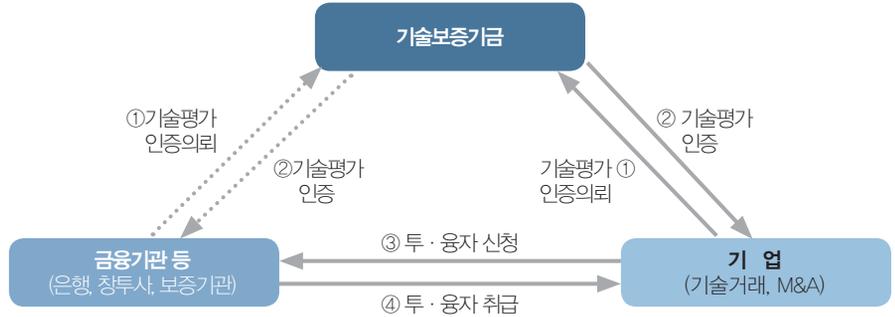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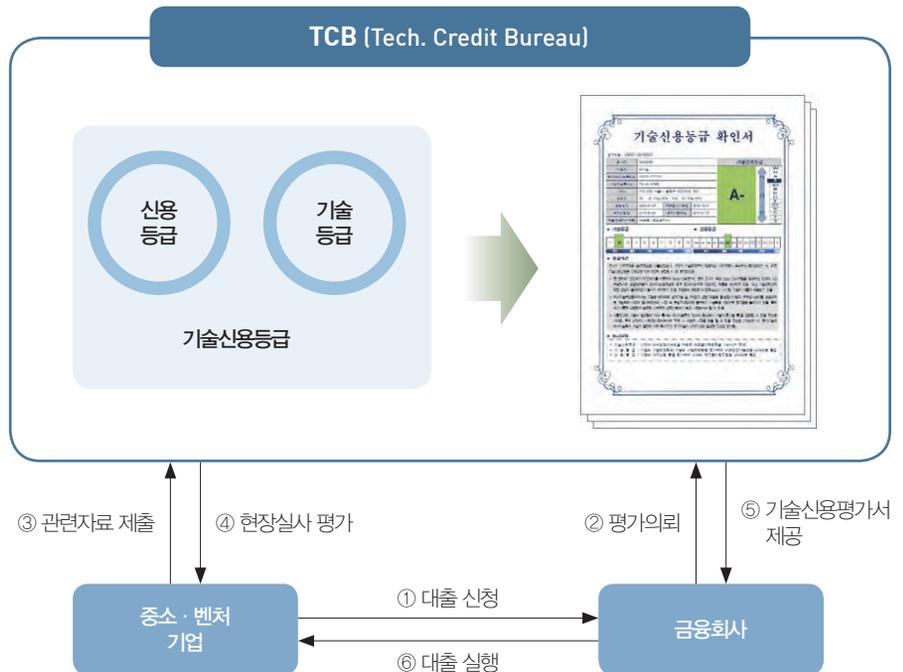
그리고, 2005. 2월부터 기보는 내부 보증용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대출, 투·융자, 기술거래 활용토록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을 기술·신용위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4년까지 약 14,000건의 기술평가인증서 제공을 통해 약 1조9천억원의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지원제도로 정착하였다.

기술평가 인증절차 및 실적



.....▶: 금융기관 등에서 인증의뢰한 경우

2014년 7월부터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 (TCB)으로 참여하여 은행·민간 TCB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참고용으로 활용되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서를 기술신용 평가서(TCB평가서)로 전환하였고, '14. 8월부터는 TCB제도의 조기 정착 및 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TCB평가서 연계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제도(1~3%p)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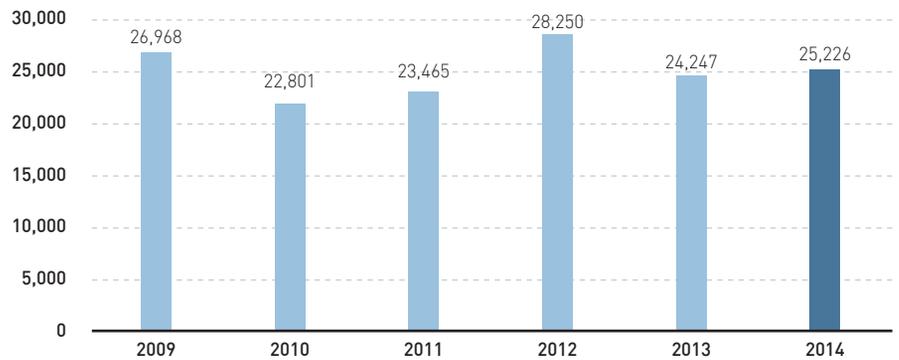
'14년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지원 현황

TCB 제공건수(건)	TCB연계 대출(억원) / 신용대출	이자보전(백만원)
4,360	17,892 / 604	932.6

한편, 기술평가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기술평가료는 평가인력, 평가기간, 평가범위 또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기술평가 활용과 민간부문 수요로 매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 고객부담 경감을 위한 평가료 인하 등에 따라 기술평가료 수입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평가료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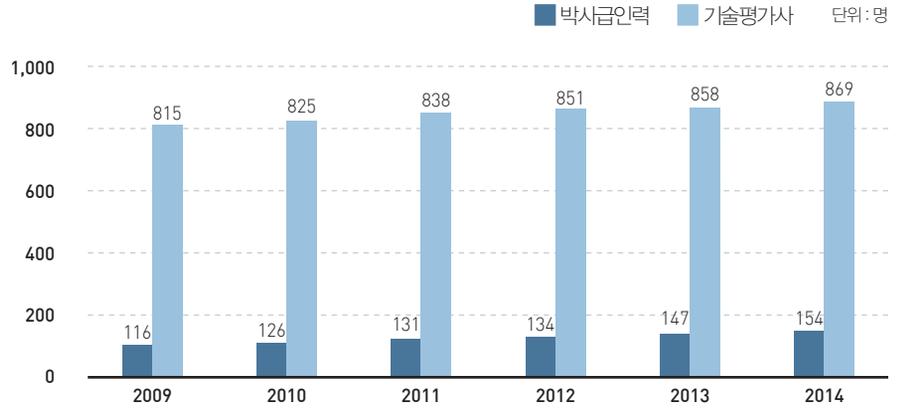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14년 기술평가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기술평가 조직·인력의 전문성 강화****창조금융 확산을 위한 기술평가 조직·인력 운용체계 재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술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보는 기술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핵심업무 위주로 기술평가 조직을 개편하였다. 중앙기술평가원의 경우 정착단계 사업 및 부수업무는 영업점으로 이관하고,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기술거래 수요발굴 및 중개, 기술이전 관련 전문기술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기술융합센터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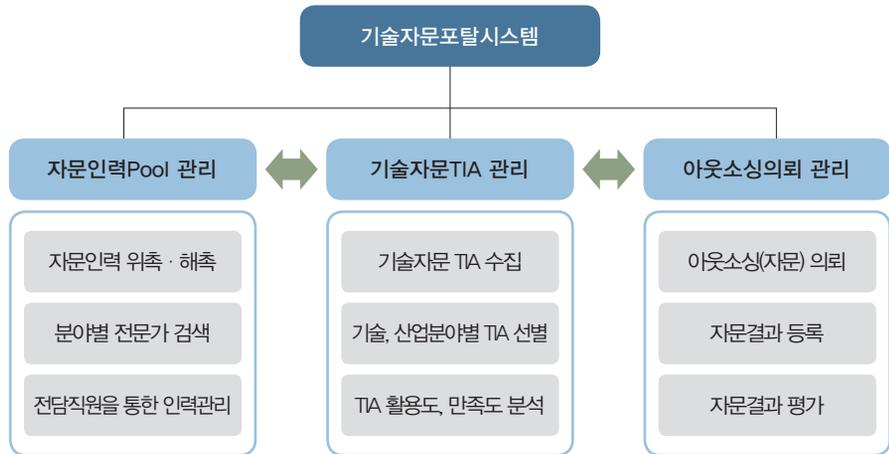
또한, 기보가 창조금융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및 기술평가사 1급 양성을 통해 전문평가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박사급 인력을 전략적 거점지역 영업점까지 확대 배치하였다.

기술평가 내부인력 운영 현황



외부전문 네트워크 확충 및 효율화

신기술 출현이 잦고 기술의 진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외부전문위원 관리·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자문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평가수요에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평가서의 질적수준 향상 및 체계화된 평가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삼일회계법인, 특허법인 다래 등 20개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평가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최신 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한 한발 빠른 대응을 위해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전문위원 POOL 확충과 함께 전문 IP(Information Provider)의 가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기술평가모형 고도화 및 新평가기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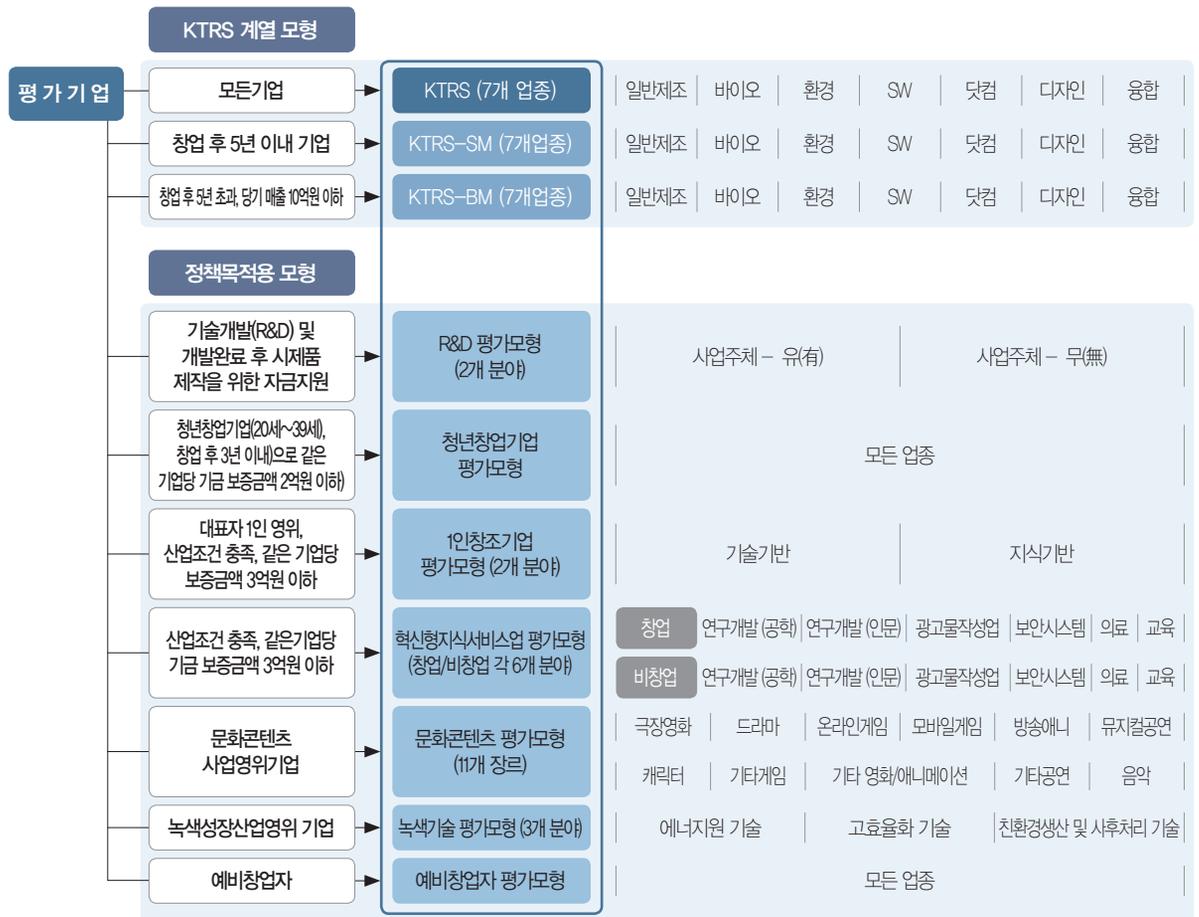
기술평가등급모형은 평가 목적과 용도에 따라 크게 KTRS계열, 정책목적용 모형으로 구분되며, 소규모 영세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단일업종 모형이던 KTRS-BM을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총 10개 모형, 53개 분야의 기술평가모형 구축을 통해 평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였고, KTRS계열 모형의 등급산출체계의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해 기술평가모형·기법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14년에는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창업자 지원에 특화된 '예비창업자 평가모형'을 신규로 개발하였고, 그 결과 성장 단계별 기술평가모형(KTRS) 적용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의 지원실적도 크게 증가하였다.

* (창업이전)예비창업자 모형 → (창업기업)KTRS-SM → (소기업)KTRS-BM → (중기업이상)KTRS

단위: 개, 억원

구 분	2013		2014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421	533	957	1,149



또한, 대학·연구소 등 사업주체가 미확정된 특허, SW,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IP) 사업화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가치평가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가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가치평가 결과의 공정성·신뢰성 향상과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 R&D성과물의 신속한 간이평가로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사업화 촉진이 기대된다.



2014년 신규 개발한 가치평가 기법

수익접근법	• 미래 현금흐름의 확률적, 선택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기술가치를 산출하는 동태적 수익접근법 개발
비용접근법	• 표준 비용접근법에 역사적 원가법, 재생산 비용법, 감가상각된 대체비용법 개념을 결합한 조정재생산비용법과 소프트웨어비용접근법 개발
시장접근법	• 제3자로부터의 라이선스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 기술 라이선스 거래의 로열티율을 참조하여 기술의 가치를 추정하는 로열티 참조법 개발
간이평가법	• R&D투입비, 기술기여도 및 조정계수 등을 이용하여 기술가치를 간략하게 산출하는 간이평가법 개발

기술평가 품질관리 강화

기술보증기금이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작성단계부터 정확한 기술·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공정한 기술평가와 함께 체계적인 품질관리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기술가치평가를 수반하는 지식재산(IP)·기술 등 창의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가진단시스템, 사전검증제도, 기술가치평가서 검수, 사후검증제도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기술평가등급모형에서는 평가자간 편차 최소화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평가결과를 다른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비교·모니터링하는 기술평가 피드백시스템을 강화하여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였다.

기술평가 품질관리체계



특히, '14년에는 중앙기술평가원 내에 기술평가 품질관리 전담 조직인 기술평가 지원팀을 신설하여 사전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전담팀에서 2회에 걸쳐 검증함에 따라 검증 품질이 균일해지고 기능적 전문화로 검증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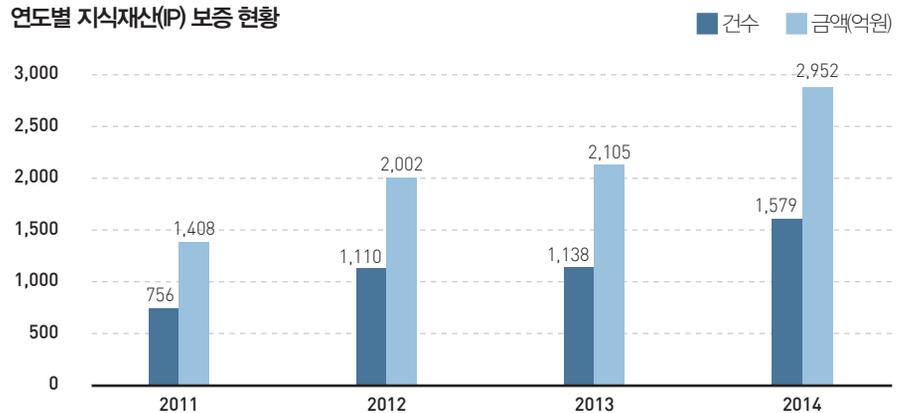


기술평가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지식재산(IP)· 기술 기반 창조금융 지원 확대

창조경제의 모토인 지식재산(IP)· 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활용 확대를 위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인프라를 보유한 기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제도인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기술가치연계보증 및 기술이전보증을 국내 선도적으로 도입· 운영 중이었으나, 창조금융 지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료, 보증비율 등의 우대사항을 포함시킨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식재산(IP) 협약보증」 등의 IP· 기술 가치평가기반 맞춤형 보증 상품을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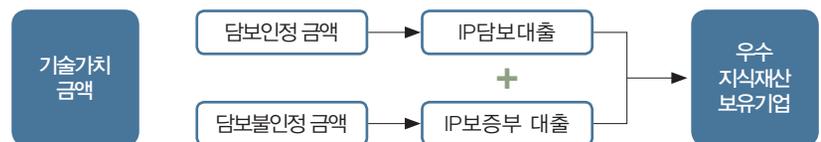
연도별 지식재산(IP) 보증 현황



2014년에는 인수자금에 한정되어 있던 지식재산(IP) 인수보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식재산(IP) 인수에 수반하는 추가 기술개발 및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자원을 One-stop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1 지식재산(IP) 협약보증*」, 「지식재산(IP) 투자보증」과 같은 지식재산관련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IP금융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1+1 지식재산(IP) 협약보증 : 기술가치평가 금액 중 협약은행이 인정 가능한 담보금액은 기보의 보증없이 협약은행 자체의 IP담보대출로 취급하고, 담보불인정 금액은 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한 P보증부 대출로 취급하는 제도

1+1 지식재산(IP) 협약보증(IP담보대출)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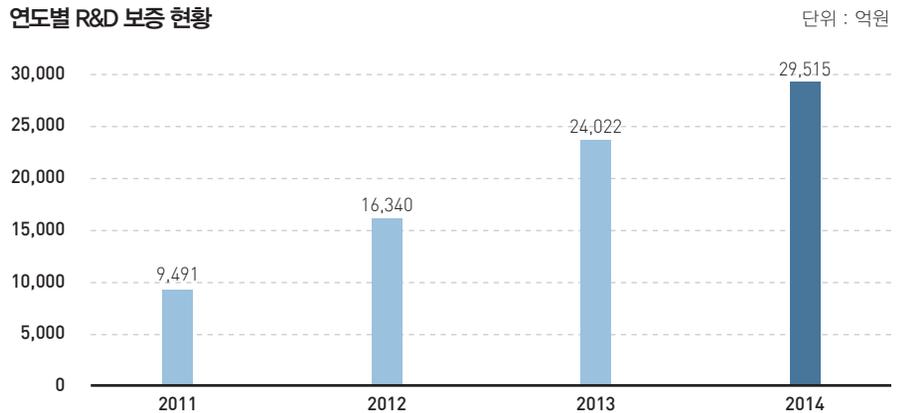
기술융합·R&D가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술 등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산업간 융합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료 감면 및 심사기준완화 등의 우대조건을 갖춘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또는 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혁신형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제도



또한, 기보의 전문평가인력, 풍부한 정책수행 경험 등의 기술평가역량을 필요로 하는 R&D 경제성 평가, R&BD멘토링, R&D기획지원 등의 정부 R&D 지원사업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R&D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R&D를 선별하여 R&D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R&D보증」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R&D 자금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연도별 R&D 보증 현황



R&D 보증 지원성과 분석('13.12.30, 부경대 노맹석 교수 등)에 따르면, R&D보증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지원 이후 산업재산권, 고용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기술력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평균보다 높은 성장(약 2배)과 수익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B사업

TB(Technology Bureau)사업 개요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정보와 기술수요정보 등을 통합·정제·가공·관리·제공하는 업무와 기술-기업 매칭, R&D과제 발굴,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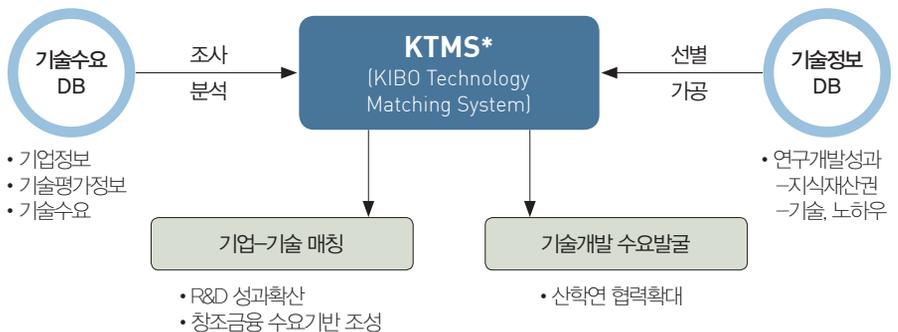
TB의 주요업무



TB 추진현황

'13. 7월 본부조직인 TB사업실을 신설하였으며, '14. 1월에는 전국 영업점에서 발굴한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TB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전담영업조직인 기술융합센터를 서울·대전에 각각 설치하였다. '15년 하반기에는 부산·대구지역으로 기술융합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14. 9월에는 TB업무 전용 IT플랫폼인 기술-기업 매칭시스템(KTMS, 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고 국가 R&D기술의 개발 촉진 및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급기술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협약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기술이전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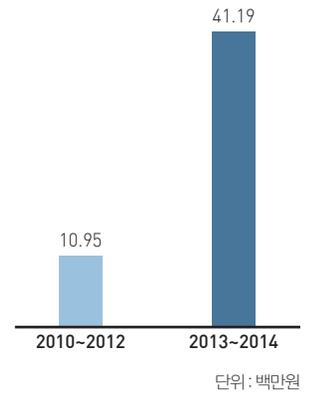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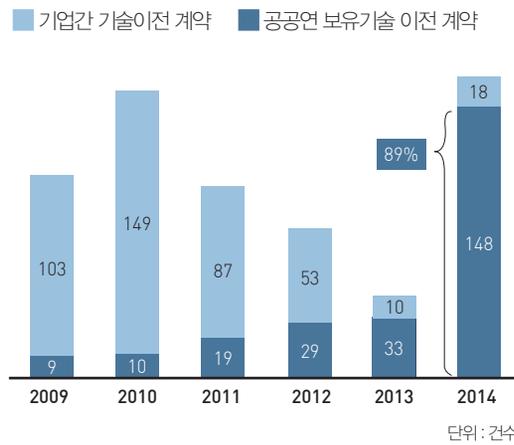
TB 추진실적 및 성과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실적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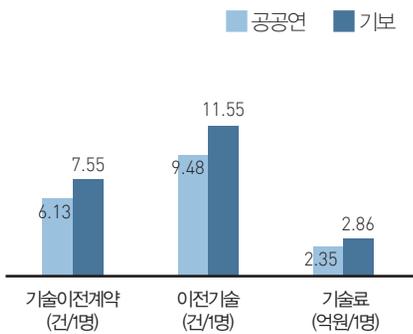
102개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3,854회의 기술이전 중개활동을 실시하여 166건의 이전계약을 통해 254개의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계약건수기준으로 공공 기술거래기관 평균 대비 약 8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전된 기술의 89.2%가 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이고, 최근 2개년 기술이전 평균거래금액은 과거대비 약 4배 증가하는 등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1인당 생산성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술수요자인 106개 기업에 대해 222억원의 F인수보증을 지원하였다.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거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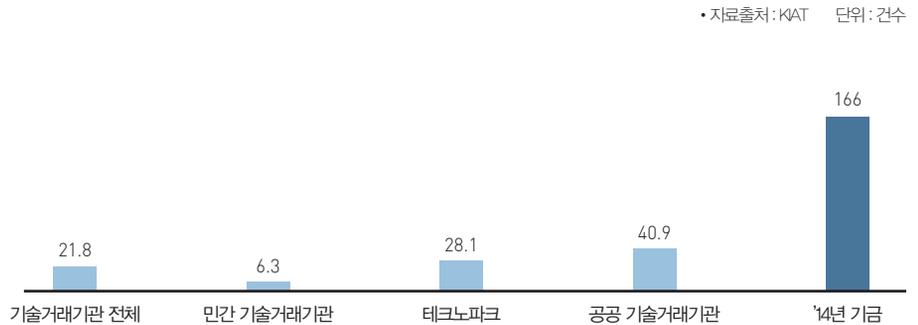
평균 거래금액의 증가



기술이전 담당인력 평균 실적 비교



기술거래기관별 평균 계약건수 대비 실적 비교



Tech-Bridge 운영성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기술 정보 66,901건, 기금의 수요기술정보 1,299건을 DB구축하였으며, 기술-수요기업간 매칭시간 단축과 정보 공유·협력을 통한 성과 극대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와 협력기관의 성과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4. 보증연계투자

(1)보증연계투자

개요

기보는 기술혁신형기업에 직접금융 조달기회 부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05. 1월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2. 6월 기금법령 개정으로 투자가 기보의 고유업무로 법제화 되었다. 특히, 신정부가 추구하는 '투자' 중심의 창조금융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용자 위주의 금융관행과 과도한 리스크 회피성향에서 벗어나, 시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점진적인 제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종류

투자는 주식인수, 전환사채(CB)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방식으로 한다.

투자대상기업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 ①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R&D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배제
- ② 투자심사일 현재 既 보증기업(또는 보증승인기업)
- ③ 기술사업평가 BB등급 이상
 -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 BBB등급 이상이어야 충족
- ④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개별기업 투자한도

같은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단, 투자금액은 해당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기술평가 BB이상	기술평가 BBB이상
개별기업 투자한도	10억원	30억원
개별기업 통합한도 (보증+투자)	50억원	100억원
관계기업군 투자한도	30억원	30억원

* 투자한도 : 기보 투자금액 기준

* 통합한도 : 기보, 신보, 보증재단의 보증금액 및 투자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

업무프로세스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신용도 및 투자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운영실적

2005년 투자시행 이후 2014년 말까지 115개 업체에 1,335억원을 투자하여 누적손익율 9.3%를 시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연도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투자 실적 및 투자수익

단위: 개,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잔액
업체수	2	10	7	8	9	8	4	2	30	35	115	81
투자금액	5.0	85.0	81.5	90.0	90.1	95.0	55.1	35.0	431.8	366.6	1,335.1	1,013.9
투자수익	-	-	29.0	2.1	19.8	20.2	51.4	60.5	22.8	△4.3	201.5	123.6

(2)투자옵션부보증

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부대출로 종자돈(Seed Money)을 우선 제공한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금의 선택으로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으로, '14년부터 제도 시행 중에 있다.

대상기업

설립 후 3년 이내 법인기업으로서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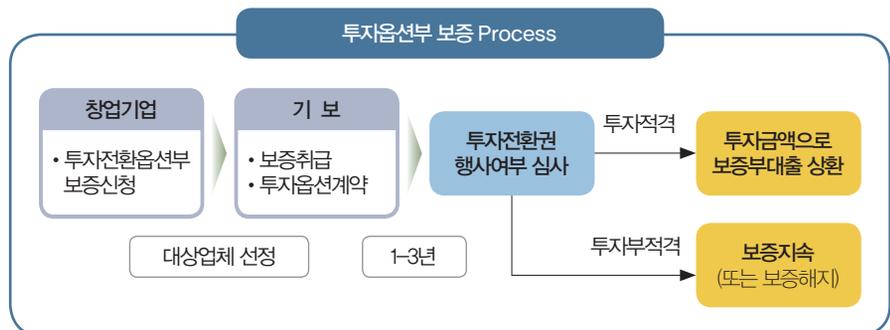
대상채무

투자옵션부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금융회사 등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차입하는 만기 일시상환 운전자금대출

보증한도 및 기한

업체당 3억원 이내 및 취급 후 3년 이내로 운용

업무프로세스



우대사항

잔액보증(100%) 및 0.5% 고정보증료를 적용

5. 기업지원

기보벤처창업교실

기술사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기술창업교육을 6일간 실시하여 창업촉진 등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4년 기보벤처창업교실 수료자 현황

단위: 명

개최지	서울	서울	합계
수료자	104	87	191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기보 보증을 이용중인 새싹기업창업 후 2년 이내, 보증금액 1억원 이내)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정착과 성공창업 유도를 위해 희망 CEO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인사·노무, 기보 지원제도 소개, 성공 CEO 특강 등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이 사업초기에 필요한 창업기업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고, 수료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이업종 교류로 신사업분야 개척 및 업무파트너십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4년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수료자 현황

단위: 명

회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합계
수료자	55	44	33	62	43	112	349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기보 보증을 이용중인 창업후 3~5년차 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우수기술기업의 CEO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성장 및 도약에 필요한 CEO 역량강화 전문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박 3일의 무료강좌로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4년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수료자 현황

단위: 명

회차	1차	2차	합계
수료자	48	42	90

2014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우수 기술·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성공창업 지원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9~11월에 걸쳐 실시한 본 대회에는 215명의 예비창업자(또는 창업초기기업)가 참가하여 예비평가, 본평가를 거쳐 최종 10명(기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 상장과 상금 및 부상을 시상하였다.

수상자에 대한 상금 수여에 그치는 기존 창업경진대회와는 달리, 보증, 창업교육, 전문컨설팅 등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4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현황

단위: 명/기업, 백만원

구분	인원	상금	부상	총상금
대상	1	10	4	14
금상	1	7	3	10
은상	1	5	3	8
동상	7	21 (각3)	7 (각1)	28
기타	본평가(발표평가) 진출자 20		10 (각0.5)	10
합계	10	43	27	70

기술 · 경영컨설팅

기업성장 전주기에 걸친 기술 · 경영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및 실패예방을 위한 기업진단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기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과 창업 및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론칭과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기업의 사업현황 분석과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실현가능한 성공창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을 2012년부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기업의 「기업건강 진단 → 처방전 발급 → 맞춤형 치유」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 · 도약기업, 재기지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컨설팅 사업을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 시행함에 따라 창업 준비부터 위기/재도전 까지 단계별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완성, 기업성장 전주기에 걸친 기술 ·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기술 · 경영컨설팅 개요



※ MD : Man-Day(전문가 1인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시하는 컨설팅 수행 단위)

2014년 기술 · 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진단컨설팅	전문컨설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합 계
지원건수	1,251	40	208	45	1,521	3,065

벤처 · 이노비즈기업 지원

국가경제의 지속적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벤처 · 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전체 보증공급의 66.2%인 13조 858억원을 벤처 · 이노비즈기업에 지원하였다.

벤처 · 이노비즈 보증공급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벤처기업	76,444	118,128	109,967	109,895	111,459	115,860	111,718
이노비즈	66,783	95,746	89,697	85,102	83,730	78,123	70,867
합 계*	93,204	140,220	132,619	128,650	131,778	135,258	130,858

*합계는 벤처, 이노비즈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자료임 (재보증 제외)

벤처인 (벤처확인 · 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기금은 벤처인 운영을 통해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성장할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 육성함은 물론,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정보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함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벤처인 전용 콜센터(1544-1120) 설치, 일대일 맞춤형 상담방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장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1. 창업(준비)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전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해주고, 창업 즉시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경영주가 만17~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
맞춤형창업성장 프로그램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6대분야* 해당기업 지원 * 1인창조, 녹색, 지식문화, 첨단뿌리산업, 이공계창업, 4050창업
특허창업 특례보증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
R&D보증	R&D 순주기(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에 걸친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BD금융 지원
새싹기업 성공창업강좌	새싹기업(보증 1억원 이하 창업 후 2년 이내) CEO에게 세무·회계, 인사·노무, 기보 지원제도 등 교육
벤처창업교실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CEO에게 자금조달 전략, 인사, 법무, IP관리 등 창업실무 교육

2. 도약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S서비스용역, 문화콘텐츠 제작 등의 체계에 따른 프로젝트 전주기의 보증지원
예비스타벤처기업육성 특례보증	성장도약단계에 접어든 우수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육성
기술·산업융합보증	기술·산업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IP) 금융지원	지식재산(IP)의 미래가치 및 사업화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자금을 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우대 지원 및 신규 고용(예정)인원 직접 채용 소요자금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제작 기업 지원
보증연계투자	보증과 연계하여 기금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과 직접금융 활성화
벤처·이노비즈기업 확인평가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청 소관 이노비즈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및 확인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기술 이전·거래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 및 제시
기술평가인증 (투/용자 참고용)	평가등급, 의견 등을 명시한 인증서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투·용자 등에 활용
도약기업 전문강좌	도약기업(창업 후 3~5년차 성장가능성 보유 우수기술기업) CEO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시뮬레이션 등 고급전문프로그램 교육

3. 성장/성숙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이노비즈기업 협약보증	은행과 금융지원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 15개 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기관은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기보는 부분보증 및 보증료 우대
상생협약보증	대기업 등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 후 취급실적에 따라 대기업 등이 특별출연
시설자금 특례보증	시설확충 등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심사 등을 우대하여 시설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기술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수출 등 거래처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출관련 자금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인수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기회 부여 및 재무구조 개선
기술이전/M&A 중개	기술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업무
녹색인증평가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기술 또는 사업의 기술우수성과 녹색적합성을 확인·인증
R&D과제의 경제성·사업성 평가	추진 중인 R&D과제 또는 기술사업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4. 위기/재도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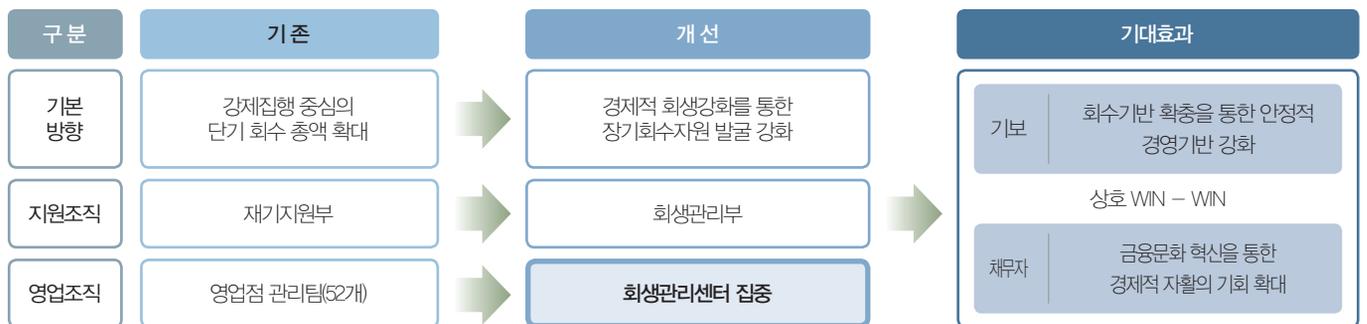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긴급경영안정보증	주요거래처 조업중단 등 긴박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증지원
경영개선지원보증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유동성지원 (Fast-Track)보증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절차(Fast-Track)로 유동성 지원
공동워크아웃기업 보증	채권은행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재창업 재지원보증	실패한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지원
재도전기업주 재지원보증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처방→치유」방식으로 기보, 중기청 등 진단기관이 협력 지원

6. 구상권관리·재기지원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보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수행 및 건전한 재기지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회생지원보증제도에서 진일보한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제도를 확대시행하여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보는 성실실패자에 대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권회수 중심의 구상권관리 사업에서 탈피하여 채무자 재기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사고, 구상권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활성화와 더불어 기보는 보증재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고율 관리 및 구상권회수에 대한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사고관리

기보는 각 영업점별 보증자산의 리스크율을 산출하고 연간 사고예상금액을 리스크율에 따라 배분하여 영업점 단위의 목표사고율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체계적인 사고율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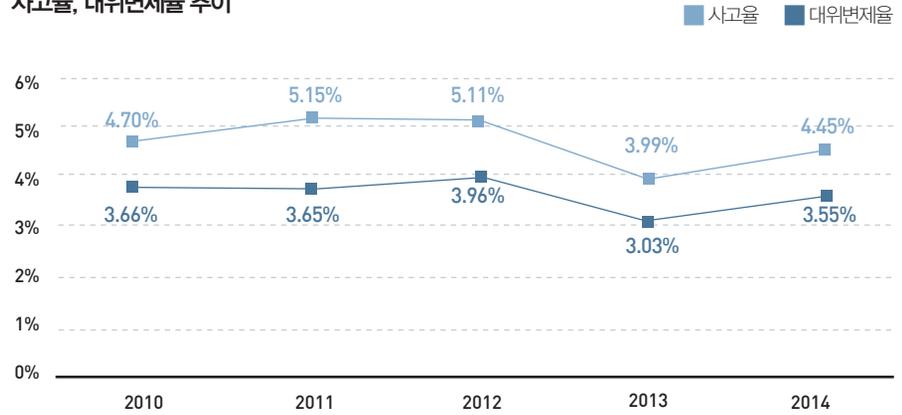
구분	사고순종		비고
	목표치	실적	
금액	9,724억원	8,541억원	1,183억원 ▼
사고율	5.2%	4.5%	0.7%p ▼

주유동화회사 편입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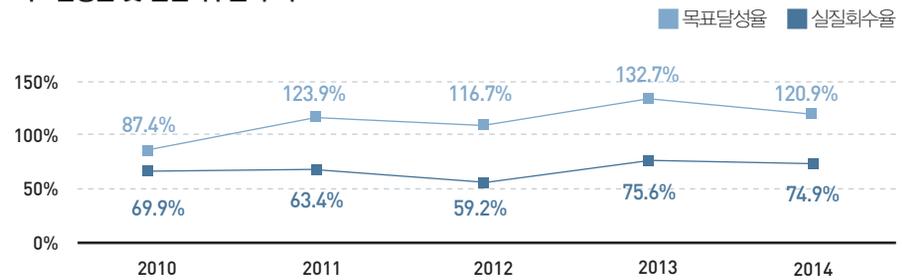
연도별 사고·대위변제율 추이

금리인하에 따른 보증기업의 차입금부담 감소로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전년대비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은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구상권 회수 또한 연대보증인 면제, 채무자회생제도 활성화 등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전사적 노력으로 '13년 이후 실질회수비율을 75% 수준으로 유지하며 구상권회수의 질적제고에 힘쓰고 있다.

사고율, 대위변제율 추이



목표달성율 및 실질회수율 추이



특수채권 매각을 통한 채권관리의 효율화

기보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특수채권의 누적적 증가에 따른 채권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불가로 인한 회생지원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1년부터 채권매각을 최초 실시한 이래 총 5조 9,276억원의 특수채권을 매각하였으며, '14. 7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대위변제후 1년 이상 경과된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14년의 경우 3,596억원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하였다.

회생관리센터 설치를 통한 구상권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보는 '14. 7월 인천 대구지역 10개 영업점의 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회생관리센터 설치로 집약적 관리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적 생산성 제고, 관리업무의 노하우 축적 등을 도모하였고, '15년 회생관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성실실패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지속적 노력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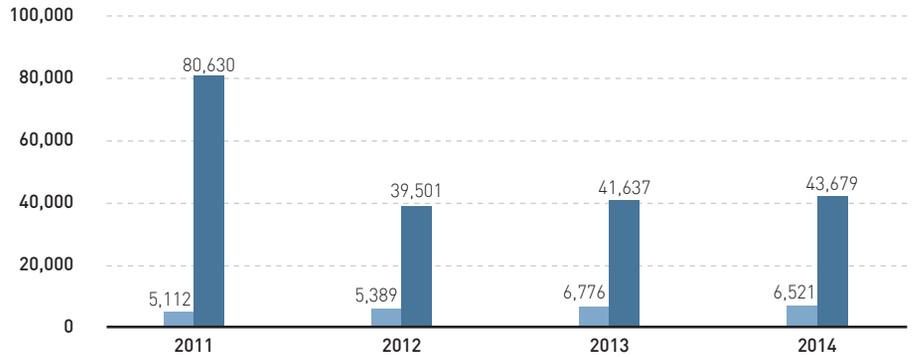
기보는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의 지속적 확대를 통하여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회 제공 및 '재기기업인 전문강좌'를 통하여 보증지원 외에 경영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하여 재실패 예방을 도모하였다.

재기지원보증 연도별 지원실적

기보는 '12. 4월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시행한 이래 매년 지원대상업체수를 확대함으로써 증가하는 재기지원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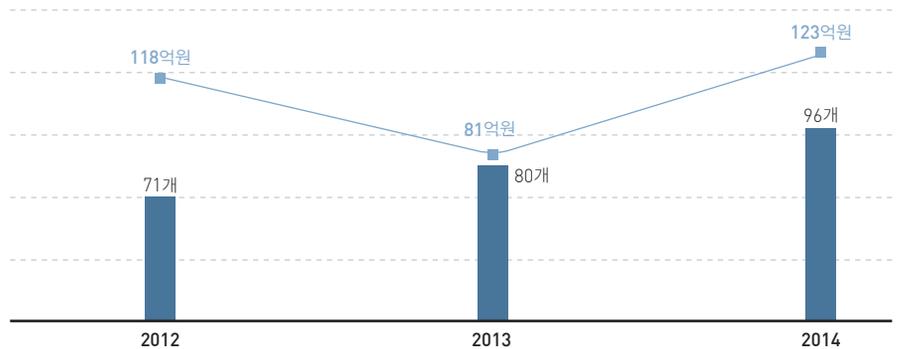
특수채권상각액 및 특수채권잔액

■ 특수채권상각액 ■ 특수채권잔액 단위: 억원



재기지원보증 지원실적

■ 지원업체수 — 보증금액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의 절차 간소화 추진

기보는 증가하는 재기지원보증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지원절차를 간소화(2억원 이하 신규보증의 경우 영업점장 전결, 1억원 이하 신규보증의 경우 기술평가자문인력 참여생략)함으로써 자금수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실시 등 경영지원활동의 강화

기보는 '14.5월 재기기업인 전문강좌를 최초 실시함으로써 재기기업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더불어 안정적 사업정착을 위한 성장프로그램 시행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성실실패자 발굴 → 재기지원보증 지원 → 사후관리강화 및 지원활동(경영컨설팅, 재기기업인 전문강좌)실시 → 성공재도약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재창업 전과정을 연계한 포괄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개요

- 기간: '14. 5. 14 ~ '14. 5. 16(2박 3일)
- 장소: 기보 인력개발원
- 참가자: 재기기업인 29명
- 내용: 세무, 회계 등 실무중심 전문강좌, 사업성공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또한, 기보는 실패기업인의 재기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재기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하였다.

7. 인재채용 및 인력개발

인재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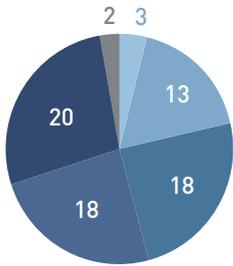
기보는 중장기 경영계획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종합적인 기술기업 지원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에 대해 채용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책임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

기보는 TCB사업 등의 신규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인력증원(26명) 및 자체 채용여력 확보노력을 통하여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44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고, 청년고용, 시간선택제근무자·고졸자 채용 등에도 주력하여 신입직원 전원을 청년층(34세 미만)으로 채용하였으며, 고졸자에 대해서도 향후 대학 진학 등의 학업시간 배려의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자로 2명을 채용하는 등 정부권장정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보는 2014년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기술평가지문성에 적합한 인력구조와 채용방식을 채택하여 박사급, 이공계인력, 지역인재 채용확대에도 주력하였다. 기보의 2014년도 신입직원 채용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박사급 6명(13.6%), 이공계 20명(45.5%), 지역인재 18명(40.9%)을 채용함으로써 타금융기관과 달리 박사급, 이공계인력, 지역인재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보는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채용시 여성인력 채용 쿼터(35%)를 설정하고 여성면접관을 배치함으로써 여성지원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14년도 신입직원(44명) 중 여성인력(18명, 40.9%) 채용비율이 40%를 상회하였으며, 청년인턴 신규인력(47명) 중에서도 70% 이상이 여성인력(37명, 78.7%)에 해당되었다. 이외에도 기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비정규직인력 2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 안정성 향상과 비정규직 감소에도 기여하였다.

신입직원 채용실적



- 취업지원 대상자
- 청년인턴 경험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여성
- 이공계
- 고졸(시간선택제)

신입직원 채용실적

단위: 명

구분	채용인원	취업지원 대상자	청년인턴 경험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고졸 (시간선택제)
신입직원	44	3	13	18	18	20	2

청년인턴 채용실적

단위: 명

구분	채용인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고졸
2014	47	4	24	37	9	3
2013	74	27	51	48	8	14
계	121	31	75	85	17	17

인력개발

기금은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인력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부에 HRD 전담조직인 인력개발팀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에 자체 HRD 연수를 위한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의 HRD 체계는 분야별 사내강사 등 전문인력 Pod의 인적자원과 연수원, Cyber 인력개발원, Cyber 문화센터 등의 Hardware, 연수이수학점제, 연수규정 등의 Software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전직원 기본역량, 계층별 리더십역량과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과정, 전문과정, 고급과정의 3단계로 세분화한 각 직위별 및 직무별 연수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디지털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자기주도적인 상시 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Cyber 인력개발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수의 업무연수를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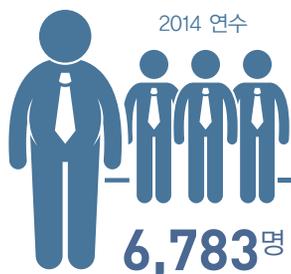
2014년도 기금의 인력개발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기초한 인력운영계획 및 인력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도 연수 실적에 대한 결과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2014년도 종합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기보는 2014년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능력 향상 연수과정을 중점 추진하였는 바, 기술평가사 보수과정, 관리업무 심화과정 등 기본과정에 IP 기술가치평가 실무연수를 신규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연수체계를 확립하여 컨설팅 직무 전문과정 설계 및 커리큘럼을 개선하였다. 또한, 조직문화 창달 및 가족친화 연수 과정 확대 운영을 위해 가족사랑캠프(1월, 2회차 209명), 권역별 문화체험연수(강화도, 경주 남산)(11월, 211명), 장기근속 직원(20년차) 조직활성화 연수(10월, 41명), 기술·문화체험연수(연중, 58명), 노사한마음연수(11월 95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리더십과정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년도 연수 실적

단위: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내부 집합연수	1,358	1,370	1,711	2,948
외부 위탁연수	657	535	535	699
사이버연수	3,841	3,351	4,158	3,078
기술·문화체험연수	55	58	60	58
계	5,911	5,314	6,464	6,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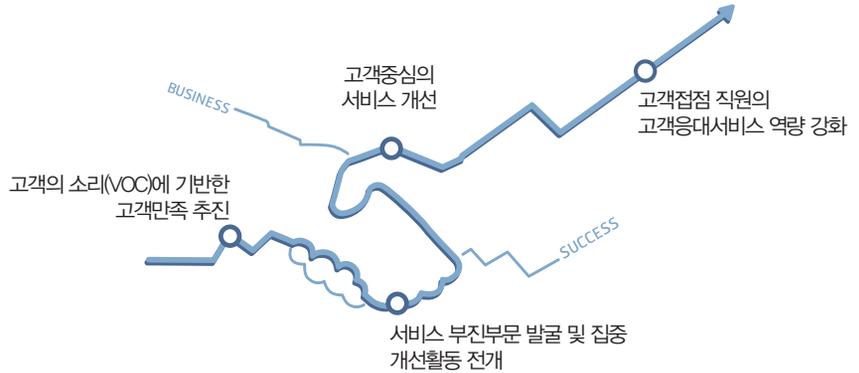


8. 고객만족

추진개요

2014년도 CS업무는 고객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 고객접점 직원의 CS역량 강화, 서비스 부진부문 집중개선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고객만족도조사에서 전년대비 0.2점이 상승한 89.9점을 획득하였다.

추진방향



고객만족 추진현황

영업점 고객맞이 · 안내서비스 실시

영업점 방문고객에 대한 '고객맞이 · 안내서비스' 실시로 고객불편 해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CS리더 워크숍

CS활동을 영업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영업점 CS리더(52명)를 대상으로 CS워크숍을 실시하여 전사적인 고객만족경영의 매개체 역할 수행

청년인턴 CS 집합교육

영업점 방문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영업점 청년인턴(39명)을 대상으로 'kbo CS매뉴얼 북'에 의한 기본예절, 전화응대요령 등 CS 집합교육 실시

CS클리닉 실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부진한 영업점을 대상(20개 영업점)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

CS광장을 통한 CS교육

CS 부진 부문 및 타기관 CS사례 전파를 통한 고객접점 직원들의 고객중심 마인드 제고 및 CS 실천을 유도

「금융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고객제안 Festival」 실시

고객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경영 추구 및 대외 이미지 제고

고객의 소리를 직접 청취, 의견 반영코자 영업점장이 A/S Call 실시

영업점장이 직접 고객(1,221명)에게 전화 등을 통해 VOC 청취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

FGI(집단심층토론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기금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중 일부(10명)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고객 대면방식을 통해 고객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CS 추진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VOC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고객만족 제도개선에 반영

고객센터 KS인증 취득

고객센터 KS인증 취득(한국표준협회, '1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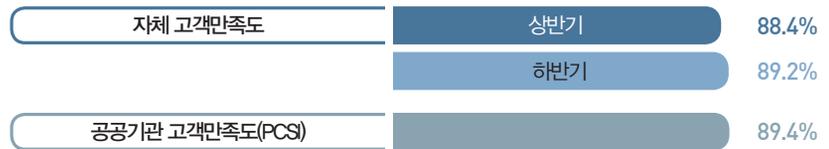
CS 평가 및 보상

- Best CS-Man 발굴 포상(10명)
- 전화설문 고객만족도 우수직원 포상(10명)
- 고객센터 우수 상담원 포상(3명)

2011



2012



2013



2014



9. 윤리경영

윤리경영 추진방향 설정

윤리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화와 체계적인 PDCA 환류 운영

윤리경영 인프라 강화를 통한 기반 재정비

윤리경영 추진현황

제도개선 · 실천을 통한 예방적 윤리경영 활동 추진

윤리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으로 부패 유발요인 제거

구 분	개정배경	개선내용
부패행위 직원 형사고발(5월)	공금환경만 형사고발 대상이며, 고발여부도 재량 사항인 바, 고발 기준 강화 필요	금품 · 향응수수도 고발대상에 포함 및 형사고발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수익계약공개 (6월)	수익계약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수익계약 공개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부패 행위자 보직금지(10월)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가 보증 업무 수행중 비리행위 재발생	부패관련 징계처분 받은 직원의 비위발생 개연성 높은 직위 · 직무에 보직금지

다양한 윤리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패사건 제로 달성

구 분	내 용
청렴협약(계약)서	모든 업무에 고객 간의 청렴협약 체결(매건)
업무 청렴도 조사	보증업무 등 청렴도 전수 조사(매주)
윤리경영 실천의 날	'Clean-Kibo' 행사 실시(매월)
청렴메아리	고객과의 쌍방향 온라인 소통채널 (매월)
청렴윤리 퀴즈	퀴즈를 통한 윤리의식 고취 (상금 190만원)
명사 초청 윤리특강	김택 교수, 신세돈 교수의 윤리 특강(2회)
반부패 · 청렴알리오	타 기관 반부패 사례 등 사내망 공지
내부공익신고센터	내부신고 채널 상시 운영(클린신고센터 등)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청렴 ·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로 반부패 · 윤리경영 인식 공유 및 확산

협력기관	기보,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간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 · 공유(29건)로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보의 '청렴계약서', '외부강의 · 회의 신고체계 등' 사례 도입(우체국금융개발원)

윤리경영 우수사례 홍보노력

구 분	기보 우수사례 내용	홍보 수단	대 상	시 기
	반부패·청렴시책 사례(총73건)	권익위 제로미사이트, 기보홈페이지	공공기관(254개), 일반	연중
우수사례 홍보	공익신고자(내부신고자) 보호제도 등	포스터, 리플릿, 사보, X배너 등	일반	5, 9월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협약서제도 등	청렴메아리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창구)	보증기업 (약 6.6만개)	매월

윤리경영 추진성과

'14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II등급(우수등급) 달성

- '13년 취약분야인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의 개선으로 II등급 달성('13년 III등급)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14년 국민권익위 우수사례 선정(254개 기관 중 10개 선정)



10. 리스크관리

기술보증기금은 신용위험(Credit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등 각 부문별 리스크의 유기적 연계 및 전사적 통합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감지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2014년도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산업별 익스포저 관리제도, 신상품 리스크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산건전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당초 보증목표 초과달성에 불구하고 인수되는 리스크량은 목표내로 방어함으로써 기술금융지원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 수립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과 연계한 유동성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통합위험지표인 유동성배수와 연계한 위기단계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위기단계별 Contingency Plan 운용으로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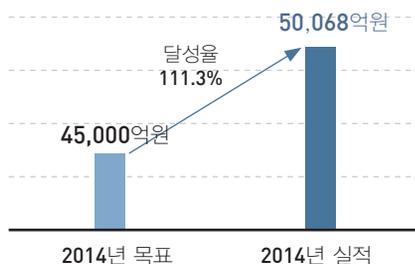


기술금융지원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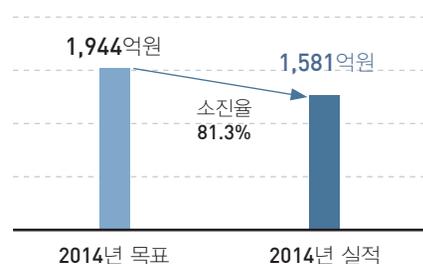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적 보증을 중점·핵심부문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보증목표를 효과적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리스크 변동단계별 차등관리 및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용 등 단위 영업점별 리스크 개선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기술금융정책과 조화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로 보증 및 리스크목표 초과 달성

신규보증공급



신규보증공급 리스크량(하향지표)



11. 정보화업무

그룹웨어시스템 재구축

기금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화된 그룹웨어시스템을 재구축하였다. 재구축된 그룹웨어시스템은 기존 그룹웨어의 전자결재, 문서관리, 각종 계산판 기능 등을 향상하였으며, 규정집과 웹하드 솔루션을 신규로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그룹웨어 업무의 처리속도가 빨라져 직원의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주요 개선사항

구 분	개선 사항	기대 효과
포털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개발 및 콘텐츠 개선 근태현황 표시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 업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규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처와 유사한 조회 기능 개정 시 신규대비표 자동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제·개정 작업의 업무생산성 향상 다양한 조회방법 및 검색기능 강화
전자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재 프로세스 개선 최신 '한글'문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최신기능 사용으로 기안문 작성의 편리성 증대
웹하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점별, 팀별 웹하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점 및 팀·업무단위별 자료의 연속적인 공유 환경구축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체계적으로 팩스 문서를 관리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자팩스시스템은 업무용 PC에서 전자문서를 일반(전자)팩스로 송신하고 개인별(부서별) 팩스번호로 수신된 팩스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팩스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팩스 수신 절차를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기금거래 보증기업 중 IT환경이 열악한 기업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기존 홈페이지 제작 템플릿(25개) 외에 기업의 업종,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템플릿 15개를 추가로 자체 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종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100개의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기업홍보 및 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공 현황

년 도	2012	2013	2014	합 계
업체수	95	120	100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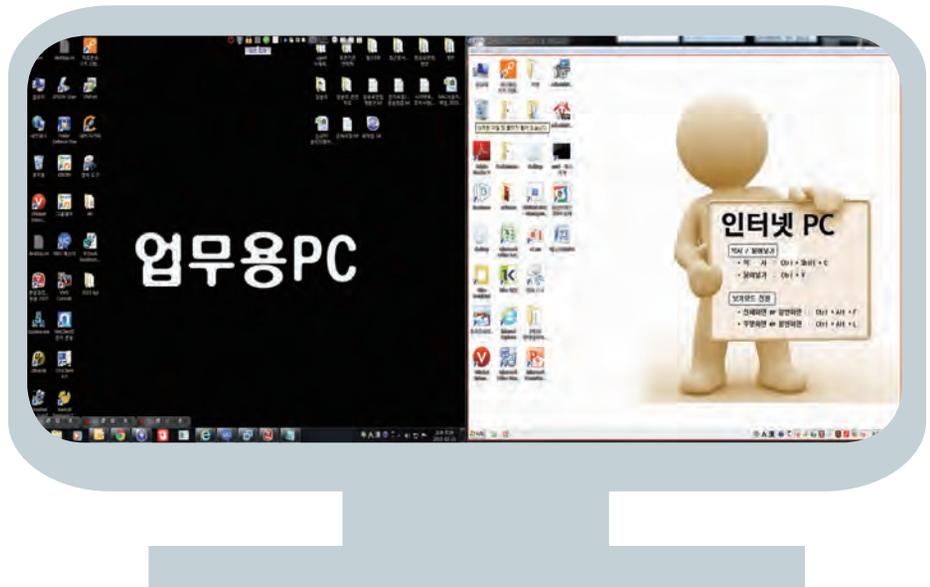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

은행·방송사 전산망 마비사태,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공공·금융기관 대상 대규모 사이버테러는 국가적 손실 및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기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인터넷 망분리를 구축하였다.

인터넷 망분리는 업무용PC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별도로 분리된 수단으로 인터넷을 접속하여 악성코드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대책으로, 기금은 전산센터 뿐 아니라 전 직원 PC의 인터넷 망분리를 2014년 중 모두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인터넷 망분리를 통해 기금은 사이버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고, 기금 정보보안 수준이 한 단계 Upgrade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겠다.

인터넷 망분리 화면(업무용/인터넷 독립된 영역 사용)



또한, 해커 및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자 인증을 강화하였다. 기존에 접근제어시스템과 운영체제 로그인 조합으로 인증을 수행하였으나, 관리자의 핸드폰 키 입력이 필요한 전화인증시스템을 추가 적용하여 3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친 완벽한 접근통제 체계를 완성하였다.



12. 사회공헌 활동

개요

기보는 사회책임경영을 통하여 전 임직원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각종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 기보에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금융 공기업의 모습을 구현하고 지속가능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추진 방향 및 주요 실적

추진 방향

2014년 기보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보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다.

주요 실적

특성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노력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개선

프로그램	대상	기존(As-is)	모니터링	개선(To-be)
교육 프로그램	창업예정자 중소기업 CEO	• 벤처창업교실 → 새싹기업강좌	• 기업 생애주기에 대응하는 교육 필요 • 인기 강좌 판별	• 벤처창업교실→새싹기업강좌→도약기업강좌(신설)→재기기업인강좌(신설) • 창업지원제도, 회계, 경제트렌드 확대 편성
오감만족 프로젝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 연간 2회 • 야구, 뮤지컬	• 더 많은 횟수 요청 • 다양한 활동 요청	• 연간 7회 • 스키, 아쿠아리움, 동물원, 연극 등 범위 확대
무료급식 봉사활동	인근 독거노인	• 돌산공원 무료급식	• 거동 불편자 참여 불가	• 찾아가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시행('15년 3월)



업무연관성과 지역성, 사회적 여건 고려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도출

14년 중점 실행과제	세부 내용
기술금융 지식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창업교실, 새싹기업강좌, 도약기업강좌, 재기기업인 강좌 • 대학생 성공창업 워크숍 •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역사랑 나눔문화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급식 봉사활동(사랑의 도시락 배달로 변경 예정) • 본점 기술전시관 지역 주민 무료 개방 • 찾아가는 과학기술 체험교실 • 각종 입찰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사회적 약자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오감만족 프로젝트 • 농어촌 봉사활동 • 사랑의 헌혈, 세월호 성금 모금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기부형 사회공헌 실시
보유한 핵심역량(기술평가 인프라)을 활용한 기술금융 지식전파

구분	추진 내용	주요 성과
벤처창업교실, 새싹기업강좌, 도약기업강좌, 재기기업인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생애주기에 대응한 맞춤형 강좌로 기술금융 지식 전파 • 도약기업강좌, 재기기업인강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창업교실 : 2회, 191명 수료 • 새싹기업강좌 : 6회, 349명 수료 • 도약기업강좌 : 2회, 90명 수료<신규> • 재기기업인강좌 : 1회, 29명 수료<신규>
대학생 성공창업 워크숍<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절차 기술금융 등 기술창업 이해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27명 •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5명
창업경진대회<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성공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 215개, 상금 및 부상 70백만원, 1,050백만원 보증 우대지원



대학생 성공창업 준비를 위한 워크숍



본점 기술전시관 지역주민 개방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지역사랑 나눔문화확산



찾아가는 과학기술 체험교실

구분	추진 내용	주요 성과
무료급식 봉사활동	• 본점 인근 돌산공원 무료급식	• 매월 23주 화요일 실시 • 평균 회당 약 400명 급식
본점 기술전시관 지역주민 개방	• 지역 주민에게 과학기술체험공간 제공 •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협조로 전문강사 초빙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연간 방문인원 8,000명 • '13년 5,758명 대비 40.6% 증가
찾아가는 과학기술, 체험교실(신규)	• 기술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방문하여 과학기술, 체험교육 실시	• 지게골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30명 • 교육기간 : 6개월('14.11~'15.4)
각종 입찰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 각종 입찰 및 협력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및 우대	• 전산장애복구센터 위탁사업자로 지역업체 컨소시엄 선정 • 조달협력업체로 지역업체 선정

국가·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구분	추진 내용	주요 성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 업무관련 이해관계자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초청하여 각종 문화체험 행사 개최 • 수요자인 근로자 자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횟수 확대	• 연간 7회 실시(전년 대비 3.5배 증가) • 스키, 아쿠아리움, 동물원, 연극 등 프로젝트 다양화
농어촌 봉사활동 실시	• 나눔문화 확산 등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농어촌 봉사활동 실시	• 연간 4회 실시, 총 300명 참여
성금 모금	•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 사랑의 헌혈, 세월호 성금	• 사랑의 헌혈 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헌혈증 기부 • 세월호 성금 : 50백만원(노사공동)



노사공동 저소득층 아동 교복 및 신학기용품 후원



어촌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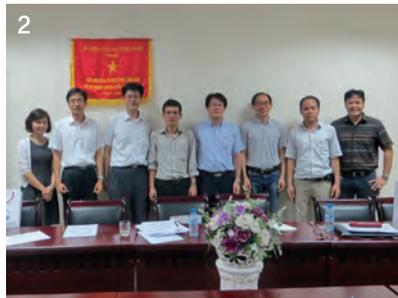
13. 국제교류 및 협력

기보는 기술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기술평가시스템(KTRS)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선진 금융지원기관들과의 기술금융 제도교류 등을 통하여 기술금융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기술혁신원(SATI)에 기술평가시스템 전수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기술평가시스템 전파와 교류를 통하여 금융한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보는 보다 활발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기술금융의 Global Lead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주요 성과



1. 대만 금융연수원 및 대만신용보증기금 워크샵
기보의 기술평가제도 및 한국의 문화창조산업
금융지원 제도 연구
2. 베트남 기술혁신원(SATI) 기술평가지표 전수
(KSP 사업 실시)
기술평가모형 전수 및 베트남형 평가모형 구축 지원
3. 태국 신용보증공사(TCG) 기술평가시스템 연수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보의 기술금융 시스템
학습



국제 교류 현황

기금을 방문한 해외 유관기관

시기	기관명	교류 내용
2월	일본 기술평가 전문기관 (주)벤처라보	양국간 기술기업 해외진출 협력방안 논의
2월	중국 천진시 정부 대표단	기술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의
3월	태국 신용보증공사(TCG)	기술평가, IT, 리스크관리 시스템 연수
4월	대만 금융연수원(TABF)	문화산업완성보증 및 평가지표 조사연구
8월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	KTMS 및 국제기술평가인증서 활용 방안 협의
10월	네덜란드 RVO	글로벌 혁신형기업 Matching 방안 협의
10월	중국 대사관(과학기술부)	기술혁신능력 평가 기보 사례 전파
10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태지역 정책담당관 방문 기술평가제도 소개
10월	콜롬비아 Bancoldex 대표단	KSP 사업 및 기술평가 연수
12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공무원 초청 연수	베트남 기술보증기관 설립 논의
12월	태국 재무부 차관 및 신용보증공사(TCG)	기술금융 확산 및 KSP 추진 협력 논의

기금의 국제회의 참가 외

시기	회의명	교류 내용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무협약 체결	우수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업무협약
4월	중국 중소기업 투자 및 융자 교류포럼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시스템 홍보
7월	콜롬비아 대사관 국경일 행사 초청	기술평가 글로벌화 논의
8월	제24차 ACSIC Training Program 참가	ACSIC 신용보증제도 혁신방안 논의
10월	AECM 연차총회	유럽 보증기관 협의체간 교류 확대
10월	IMF·WB 연차총회	세계 금융기관과의 교류 확대
10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업무협약 체결	우수기술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업무협약
10월	태국신용보증공사(TCG) 초청 기술평가 세미나	태국 유관기관 대상 기술금융 전파
11월	대만금융연수원(TABF) 및 대만신용보증기금(SMEG) 워크숍	문화산업완성보증 및 KTRS 소개 등
11월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초청 기술평가 전수 워크숍 참가	기술평가 제도 소개 등
11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협력관계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기술이전 및 기술평가 협력관계 구축
11월	제27차 ACSIC 회의 참가	아시아 신용보증기관 교류 협력
11월	페루 FOGAPI 주최 국제 컨퍼런스	기술금융 보증제도 사례 소개

1. 태국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 전수 세미나
태국 재무부 및 유관기관 대상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시스템 전파
2. 중국 중소기업 투자 및 융자교류 포럼 참가
기술금융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례 발표
3. 태국 재무부 차관 방문
기보와 태국과의 기술금융 협력 방안 논의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부록

APPENDIX

1. 결산 재무제표
2. 상임/비상임이사
3. 운영위원
4. 주요일지
5. 영업점 현황

1. 결산 재무제표

'14년도 요약 재정상태표

(2014.12.31현재)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및 순 자 산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2,065,244	I. 유동부채	137,700
현금및현금성자산	14,307	선수수익	132,714
단기금융상품	1,161,608	기타	4,986
단기투자증권	853,257	II. 장기충당부채	943,947
기타유동자산 등	36,072	대위변제준비금	873,249
II. 투자자산	659,476	유동화보증대위변제준비금	47,577
장기금융상품	109,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1,592
장기투자증권	351,427	소송충당부채	1,529
기타투자자산 등	199,049	III. 기타비유동부채	47
III. 일반유형자산	131,749	부채총계	1,081,694
토지	40,528	I. 기본순자산	10,360,891
건물	80,213	설립시 기본재산	21,768
기계장치 등	11,008	출연금	10,339,123
건설중인자산	0	II. 적립금및잉여금	(8,227,874)
IV. 무형자산	17	전기이월잉여금	(8,076,768)
산업재산권	17	기타순자산의 증감	50,000
V. 기타비유동자산	483,231	당기재정운영결과	(201,106)
구상채권	375,923	III. 순자산조정	125,006
보전채권	563	투자증권평가손익 등	125,006
보증금 등	106,745	순자산총계	2,258,023
자 산 총 계	3,339,717	부채와 순자산 합계	3,339,717

'14년도 요약 재정운영표

(2014.1.1 ~ 2014.12.31)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총 원 가	수 익	순 원 가
I. 프로그램순원가	983,426	(276,350)	707,076
산업금융지원	983,426	(276,350)	707,076
II. 관리운영비			43,566
인건비			21,212
경비 등			22,354
III. 비배분비용			38,729
자산감액손실 등			38,729
IV. 비배분수익			97,094
자산운용수익 등			97,094
V. 재정운영순원가			692,277
(= I + II + III - IV)			
VI. 비교환수익 등			491,171
부담금수익			475,401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5,770
재정운영결과 (=V-VI)			201,106

'14년도 요약 순자산변동표

(2014.1.1 ~ 2014.12.31)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10,360,891	(8,076,768)	96,305	2,380,428
보고금액	10,360,891	(8,076,768)	96,305	2,380,428
II. 재정운영결과		201,106		201,106
III. 조정항목		50,000	28,701	78,701
투자증권평가손익			28,702	28,702
자산재평가이익			(1)	(1)
기타순자산의증감		50,000		50,000
IV. 기말순자산 (= I - II + III)	10,360,891	(8,227,874)	125,006	2,258,023

2. 상임이사/비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S

상임이사



이사 강낙규

이사 박종만

전무이사 김기홍

이사장 김한철

비상임이사

NON-EXECUTIVE
DIRECTORS



감사 박대해

이사 강석진

이사 홍성제



이돈희



양희관



김은호



차왕조



김만두



송경주



한현옥

3. 운영위원

기술보증기금 운영위원 명단

(2014.12월)

* 운영위원회의 설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7조

구 분		운 영 위 원		
위 원 장		기 술 보 증 기 금 이 사 장		
지명 위원 (5명)	• 금융위원회 지명 (1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용범
	• 기획재정부장관 지명 (1명)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조규홍
	• 중소기업청장 지명 (1명)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김병근
	• 중소기업은행장 지명 (1명)	중소기업은행	전 무 이 사	박춘홍
	• 국민은행장 지명 (1명)	국민은행	부 행 장	오현철
위촉 위원 (7명)	•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 (3명)	신한은행	부 행 장	최병화
		부산은행	부 행 장	이두호
		하나은행	부 행 장	김병호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 (1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 (1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 기술관련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 (2명)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	부 회 장	김이환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부 원 장	공석	

4. 주요 일지

일 자	주요내용
2월 3일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제도 시행
2월 18일	노사 공동 '저소득층 아동 교복 및 신학기용품 후원'
3월 10일	태국 신용보증공사(TCG)에 기술평가시스템 전수
4월 1일	기술보증기금 창립 25주년 기념식
4월 4일	한국산업은행과 포괄적 업무제휴 체결
4월 16일	장애인고용신뢰기업(TRUE COMPANY) 은상 수상(고용노동부)
5월 12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우려 중소기업 지원
6월 20일	공공기관 유일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
6월 27일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7월 1일	인천, 대구 회생관리센터 설치
7월 4일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그룹웨어 시스템 재구축
7월 14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7월 21일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광장' 개설
7월 24일	여성지위 향상 포상(여성가족부)
8월 6일	베트남형 기술평가 모형 전수 및 구축 지원
8월 13일	조직개편((본부)11부2실4부속실→10부2실6부속실, (영업조직)기술융합센터 설치, 지역본부→영업본부)
8월 13일	글로벌 녹색기술이전기구(WIPO-GREEN) 파트너 가입(국내 유일)
9월 16일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개최
9월 18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9월 25일	특수채권 매각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화(KAMCO)
9월 26일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BM특허(3건) 출원
10월 1일	Tech-Bridge(KTMS) 오픈
10월 29일	신입직원 44명 채용
10월 30일	오창영업소 개점
11월 2일	대만금융연수원 및 대만신보와의 워크숍
11월 10일	기술금융세미나 개최
11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글로벌 기술이전 및 기술평가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월 18일	안전한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인터넷 망분리' 구축

5. 영업점 현황(가나다 순)

구분	주 소	대표전화
경기 영업 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국민연금 수원사옥 6층	031)8006-1500
대구 영업 본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부산 영업 본부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7층	051)606-7433
서울 영업 본부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인천 영업 본부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충청호남영업본부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043)610-2231
가 산 지 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1906호	02)818-4300
강 남 지 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5층	02)2016-1300
강 령 지 점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0-8700
광 주 서 지 점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기업은행3층	062)941-6833
광 주 지 점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00
구 로 지 점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8층 1801호	02)6124-6400
구 미 지 점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4 기업은행 3층	054)440-0730
김 포 지 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신한프라자 8층 805호	031)980-8600
김 해 지 점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기업은행 중앙지점 4층	055)330-2100
녹 산 지 점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20 외환은행 3층	051)832-0460
대 구 지 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대 구 북 지 점	대구 북구 원대로 130 LH빌딩 5층	053)356-0421
대 구 서 지 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0 지산빌딩 7층	053)652-1861
대 전 지 점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기보빌딩 1층	042)610-2200
대 전 동 지 점	대전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 2층	042)250-0700
동 래 지 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051)510-6900
마 산 지 점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2층	055)249-9799
목 포 지 점	전남 목포 옥암로 25 기업은행 2층	061)288-1500
부 산 지 점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보빌딩 3층	051)606-7674
부 천 지 점	경기 부천 오정구 석천로 345 부천테크노파크 301동 102호	032)620-8800
부 평 지 점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303호	032)623-6140
사 상 지 점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71 하나은행 2층	051)320-3400
사 하 지 점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36 시우스빌딩 3층	051)250-7808
서 울 지 점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서 초 지 점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 단우빌딩 4층	02)3476-7265
성 남 지 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운데미디어 6층	031-750-4800
송 파 지 점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601호	02)3400-7900
수 원 지 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국민연금 수원사옥 6층	031)8006-1500
순 천 지 점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 기업은행 6층	061)729-9333
시 화 지 점	경기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 KT&G 안산지사 3층	031)496-5911
아 산 지 점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00

구분	주 소	대표전화
안 산 지 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9층	031)8084-5300
안 양 지 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건강보험빌딩 2층	031)450-1600
양 산 지 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216 기업은행 3층	055)387-6571
용 인 지 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9 2층	031)8020-4000
울 산 지 점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052)220-7900
원 주 지 점	강원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2층	033)730-8300
의 정 부 지 점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44 석천빌딩 4층	031)820-0300
익 산 지 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063)840-3100
인 천 지 점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인 천 중 양 지 점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30 1층	032)420-3500
일 산 지 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 15층	031)931-7200
전 주 지 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11층	063)270-9800
종 로 지 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22층	02)738-7980
진 주 지 점	경남 진주시 대신로 310 기업은행 4층	055)750-1111
창 원 지 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3층	055)210-4099
천 안 지 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02호	041)629-5913
청 주 지 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인템프라자 6층	043)290-9513
춘 천 지 점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5층	033)240-2800
충 주 지 점	충북 충주시 애향로 10 현대자동차 3층	043)842-1591
평 택 지 점	경기 평택시 평택1로 48 비전프라자 3층	031)659-8700
포 향 지 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기업은행 3층	054)271-4900
화 성 지 점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4-4 우리들유통타운 C동 207호	031)299-8200
용인인력개발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 6번길 43	031)8020-9800
중앙기술평가원	서울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빌딩 리빙관 11층	02)2155-3753
경 산 영 업 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문호58 씨티원빌딩 4층	053)859-9000
군 산 영 업 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063)460-2800
오 창 영 업 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기술관 310호	043)251-1500
광주회생관리센터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88
대구회생관리센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1층	053)251-5650
대전회생관리센터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5층	042)610-2255
부산회생관리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1 메리츠타워 17층	051)601-1900
서울동부회생관리센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 201호	02)3430-4733
서울서부회생관리센터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대교타워 17층	02)881-1611
수원회생관리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기아자동차 남수원사옥 10층	031)899-9300
인천회생관리센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1층	032)830-5700
제 주 영 업 팀	제주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64)727-0271
대전기술융합센터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3층	042)610-2279
서울기술융합센터	서울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 11층	02)2155-3652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지난 25년간, KIBO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기술금융 시장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기술평가'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며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꾸준히 정립해 왔습니다.

KIBO는 동북아 금융 허브 시대를 견인하는
금융공기업으로 기술과 금융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KIBO** 기술보증기금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1228-5)
기술보증기금 홍보실 Tel. 1544-1120 www.kibo.or.kr